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社說

風水害應急對策

一

風水害는 例年잇는 일이지마는 今年의 그것은 자못 激甚한바가 잇섯다. 京畿道 以南七道에 亘하야 襲來한 大暴風雨에 依하야 人畜의 死傷, 家屋의 流失, 船舶의 沈沒破壞, 農作物, 耕地, 道路, 堤防, 橋梁, 鐵道, 電信等에 對하야 未曾有의 被害를 與하얏다. 그리하야 金額으로 換算할수 잇는 損害額만 槪算을 처보아도 一億圓을 훨신 넘는다고한다. 이에 對하야 朝鮮總督府는 一邊, 朝鮮社會事業協會로 하여금 三十萬圓程度의 應急救濟金을 民間으로부터 募集하는 同時에 他方, 大藏, 拓務兩省과 折衝한 結果, 風水害應急救濟費로 二百六十萬圓을 支出하기로 決定되엿다고 한다. 二百六十萬圓이라는 數字는 救濟를 要할 對象方面으로 보아 基礎標準이 잇는 數字가 아니요, 總督府 第二豫備金 全額이 二百萬圓, 總督府 特別會計 剩餘金이 六十萬圓이든 事實에 基礎를 둔것으로 생각된다.

二

民間募集의分과 總督府支出의 分을 合하면 約二百萬圓인바 總督府當局의 意見을 드러보면 이것은 直接 且應急救濟費에 充當한다고 한다. 詳言하면 罹災民中에 굶는 者에게 食糧을 配給하며, 집, 업는者에게 建築費의 一部分或은 全部를 補助해주되 被害七道에 對하야 損害의 程度에 應하야 按分比例率에 依하야 配定分給하는데 잇다고한다. 이미 民間에서도 내일수 잇는 限까지를 내이고, 또 總督府에서도 支出할수잇는 限까지를 내엿다고할것이나 被害地域七道라는 廣範圍에 亘하야 金錢으로 換算할수잇는 損害額만 보아도 一億圓以上인 天災에 對하야 僅僅二百萬圓의 應急救濟費라는것은 實로 紅爐點雪의 感이 업지 못하다. 그러므로 어떠한 方法이든지 適宜한 方法을 講究하야 民間에서도 좃터, 또한 爲政當局에서도 좃터 直接 救濟의 道를 講究하야 幾百萬罹災民으로하여금 將次올 嚴冬을 지낼수 잇도록 하기를 첫재로 希望하는바이다.

三

다음 前記二百萬圓의 救濟는 말하면 焦急한 直接救濟策에 關하는것이라, 이것만으로서는 罹災民을 明年秋收期까지 救濟하는 對策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總督府는 이에 感하는바 잇서서 明年度 追加豫算으로 二千萬圓을 計上하야 道路改修, 河川整理等의 大土木事業을 起하야 此에 依한 勞賃의 撒布에 依하야 間接으로 罹災民에게 生業을 주자는 計畫을 세우고 잇다고한다. 우리는 이災害救濟土木事業二千萬圓案이 來期議會를 無難히 通過하기를 希望함과 함께, 이直接救濟와 間接救濟의 兩方面을 通하야 下級官廳을 嚴히 監督하야 (一)救濟期를 遲하지말것, (二)罹災民으로 救濟에 빠지는 사람이업게

最後方針傳達코저 桑島局長을急派

川越、蔣會見을側面에서促進

日中交涉 重大岐路에直面

【東京電話同盟】停頓中인 日中交涉은 蔣介石氏의 南京歸還으로 四、五日中에 本格的交涉이 展開될것가티 期待됨으로 外務、陸軍、海軍三關係當局은 連日 對策協議會를 開催하고 協議會에서 決定한 方策을 基礎로 廣田首相, 有田外相, 永野海相, 寺內陸相等 政府首腦部가 熟議하고잇든바 마참내 最後的具體方針이 決定되엿슴으로 有田外相은 右方針을 傳達키爲하야 特히 桑島東亞局長을 南京에 急派, 川越大使에 對하야 政府의 眞意를 傳達케하고 川越蔣兩氏會見을 側面으로부터 促進케 하기로되엿다. 右에 關하야 外務當局은 二日午後零時半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外務省發表

今回의 日中交涉結果는 日中關係가 好轉되든가 或은 非常히 惡化되든가하는 重大意義를가지고잇다 따라日本政府는 愼重한 態度로서 交涉에當하고잇는바 當局은 現地의 時局이자못重大하다고 思考하다 따라 日本政府는 政府의 眞意를 蔣介石行政院長、張群外交部長等에게、充分徹底케할 必要가잇다 今回의交涉開始以來 電信의往復으로 隨時日本政府의 意向을傳達하엿스나 電信으로는 充分히 眞意를通達할수업슴으로 有田外相은 今日(二日)桑島局長을 至急南京에 派遣하야 川越大使에 對하야 政府의 眞意를 充分傳達하고 今回의交涉에잇서서 日本側의主張을 貫徹케하기로되엿다 그리고 桑島局長은 二日午後九時三十分 東京驛發 神戶로부터 長崎丸에乘船하고 上海에 直行하야 定期航空便으로 南京에赴하야 川越大使及 陸海軍當局에 政府의方針을 傳達할豫定이다

桑島局長渡中豫定

【東京電話同盟】有田外相으로부터 [illegible]命令을 受하고 南京에 急行하기로된 桑島東亞局長은 南京에서 川越大使와會見하고 [illegible]日 [illegible]協議를 遂한後 [illegible]三日 同地에 滯在하야 使命을 다하고 至急 歸京하야 有田外相에게 南京情勢를 復命하고 今後의 日中交涉에 重大 포인트를 [illegible]할豫定이다

大元帥陛下 大本營內서御統監

【札幌電話同盟】大演習御統監의 第一日、二日은 陛下께옵서는 野外御統監은 하시지아니하옵시엿스나 終日 大本營內 御座所에 게옵시며 御軍服을 버스시지안코 시압고 親히 地圖를살피시엇다 閑院參謀總長宮殿下를 爲始하야 統監部 幕僚로부터 時時로 上奏할 事項에 對하야 宇佐美侍從武官長을 御相對로 御熱心으로 御統監하압시엿다고 下聞된다

秩父宮殿下께서 게시온 第八師團은 衝天할 鬪志를 藏하면서 進發 夕刻까지에 想定에示한 石狩平原의 南端에 集結을 了하엿다 이에對하야 白帽擬敵한 北軍第七師團은 北海道에 進入한部隊를 一擧에 邀擊할라고 石狩平原에 集結 그先進部隊는 夕刻 벌서 石狩平原北端에 姿態를보이어 石狩野는 兩軍의 砲火가 交지아니엿스나 戰機가 熟하야 一觸卽發의 險勢이엿다 將兵은 前例업는 長時間의 待機로 一日夜는 兩軍對峙한대로 戰雲이 濃厚하야 統監部로부터의 命令을 待機하고잇다

日中兩國間에는 新衝突은不起

日本의眞意는歐米勢力排除가目的

佛半官新聞당紙論評

【巴里一日發同盟】半官機關紙당은 三十日紙上에 社說을 揭載하야 左와如히 論하엿다

日本政府와 蔣介石氏와의間에 協定이 成立되려할時에는 언저나 新事件이 發生하다 그리고이러한時期에 中國抗日運動은 猛烈히復活된다 日本政府는 이事實을 口實로 中國에政治的壓迫을加하려한다 그러나이方法은 危險性을 包藏한다고말치안흘수업다 勿論 現在에는 日中兩國間에 새로 衝突이이러나리라고는思치안는다 日中兩國은 協力하야 東亞를 歐米各國의勢力으로부터 解放하려하고잇다 이것은곳日本政府의政策인同時에 蔣介石氏의 政策이다 그러나如斯히日本政府와 蔣介石氏의 政策이 合致됨으로 도리혀 國民黨의急進分子를 反蔣運動으로 誘導하지 안는가 思維된다 다만 西南派의 屈服으로 蔣氏의位置가 强固하게 된結果 國民黨의 基礎가 硬化된點으로보아 日本政府로서는北中工作에잇서 成功을 期할것은 疑心업다

다음에 上海事件에 言及하야 滿洲事變及 中國駐屯軍의 增强가 新京에서 會談을 遂行한結果 日本軍部는 北中에잇서서 其位置를 强化하기爲하야 積極的行動을 取하리라고 觀測되는바 그러케되면 上海事件의 [illegible]은 가장 [illegible]것이다 그러나 今回는 駐中軍部[illegible]하야 東京에서도 過去十數月間 [illegible]件이 [illegible] 目되다 더욱 北[illegible]件과 靑島의 [illegible]에 [illegible]하야 所[illegible]件의 外交에 依하야 日中[illegible]方의 [illegible]을 서두려하는 多少의 方[illegible]를 發見하리라 但 [illegible]한것은 日本政府와 蔣介石氏와의間에 [illegible]日交涉으로 有田外相의 [illegible]明에 依하면 日本政府는 有交涉에 依하야 中[illegible]에 [illegible]反日宣傳을 停止식히기하는것이다

不穩計畫豫報로 日本軍極度嚴戒

避難民續續租界集中

【上海一日發同盟】中山兵曹射殺事件의 最終公判이 열릴 一日을 期하야 中國側에 不穩한計畫이 잇다는情報가잇서서 日本陸戰隊는 一日早朝부터 北四川路 天通庵路 西華德路에至하는 虹口方面一帶의 日本人密集地域을包含하야 警戒網을布하고 各日本主要官衙에는 바리케드를構築하야 事件이發生되드라도 卽時犯人의逃走를阻止할수잇도록 警戒配備를 完了하엿다 이것을目睹하고 中國街에는 戰爭이勃發한것과如한 騷亂한 空氣가 流布되여 閘北方面에는 家財를 人力車、自動車에 滿載한避難民이 가득찻고 北四川路、狄思威路一帶는 佛租界와 南市方面으로가는 避難民과 求景軍衆으로 大混亂을 呈하엿잇다

滿蒙會議二、三日延期

【滿洲里一日發同盟】滿蒙會議는 一日부터 開會豫定이엿섯는데 外蒙代表未到着으로 不得已二、三日延期하게되엿다

英蘇海軍協定草案 兩代表意見一致

蘇聯은極東艦隊의排水量備砲口徑에對해

어떠한制限도不受!

【倫敦一日發同盟】英蘇兩代表는 一日午後 英國外務省에會合하야 海軍協定草案의 最後的檢討를遂한結果 完全히意見一致되엿다 한다 英蘇兩國代表도 來週早早 海軍會談을 開始할터인데 會談終了를 기다려英蘇兩國政府는 正式 海軍協定을調印하리라한다 協定草案은 所謂極東水域에 對하야 蘇聯政府는「艦船에 對한 自由裁量의權限」을附與하엿다한다 右草案內容으로 傳하는바는 左와如하다

一、蘇聯政府는 新倫敦條約의 質的制限及 建艦通報條項으로부터 離脫함

一、蘇聯政府는 主力艦二隻 甲級巡洋艦七隻의 建造權을確保함 但甲級巡洋艦의 備砲口徑은 六吋로함

一、蘇聯政府는 新倫敦條約의 不律造帶를 離脫하야 甲級巡洋艦七隻以外 八千噸以上 一萬七千五百噸의 艦艇을 建造치안이함

一、日本政府가 新倫敦條約에 參加치안는限 蘇聯政府는 極東艦隊의 排水量備砲口徑 其他에對하야 何等制限도 受치아니함 但蘇聯政府는 新協定의 質的制限을 超過하는 艦艇을 極東으로부터 歐州에 廻航치아니함

三國共同聲明을 日本政府에도通告

【東京電話同盟】在佛國 佐藤大使로부터 外務省에 達한 公電에依하면 佛國外務省은 九月二十六日附 文書로서 今回法貨切下에 同伴한 通貨協定에 關한 英、米、佛三國政府共同聲明을 添附하여잇다 此書日本에도 傳達함과 同時에 三國政府가 他國政府에 希望한 聲明第五項 即「三國政府는 本政策에 對하야 他國協力을 催促하고又 他國政府가 不合理한 爲替上利益을 獲得하야 三國政府의 企圖를 妨害치안흘것을 要望한다」라는 點에關하야 日本政府에서도 特別한 注意를 拂할것을 希望하는바이엇다

墺國政府、公然히 再軍備工作着手

小協商諸國산젤만條約違反으로抗議提出

三國外相維也納會合

【維也納一日發同盟】墺太利政府는 去四月一日「國民强制徵募法」案을 議會에提出 산젤만條約 第百十九條의 軍事條項을 事實上 破毁하는 行動에 나갓는데 十月一日부터 二十一歲의 壯丁八千名은 右徵募法에 墺太利政府는 空軍建設資金募集에着手 公然再軍備工作에 出馬하게되엿다

【維也納一日發同盟】墺太利政府는 산제르만條約을 事實上破棄하고 再軍備에 公然히 進出한 結果 諸權한 歐羅巴政局은 다시 微妙한動搖를 發生되기에이르럿다 過般介입트外務次官이 못되리니首相을 訪問 차노外相을 交하야 墺首相會議를 遂하는等의 事實에 徵하면 墺太利政府의 强硬한 態度의 背後에는 伊太利政府가 잇다는것은 疑問업스나 消息通側은 一日夜 如左히 意向을 洩漏하여잇다

最近墺太利國內의 나치스進出은 墺太利國內靑年이 遂次나치시즘에 感染되어가는것을 看過할수업서 不得已今回手段에 나간것이라생각한다 以上의 觀測이 妥當하다면 墺太利政府의 措置는 獨墺伊三國間의 關係에도 何等 影響을 發生지 가지안흘것으로보고 체코스로바키아政府를 비롯하야 小協商各國은 산젤만條約破棄를 默過할수업다는 立場에잇서서 大略强硬한 抗議를 提出할것으로 推察된다

【羅馬一日發同盟】伊墺匈三國外相은 十一日 維也納에 會合하야 羅馬協約締結에 對하야 潮案會議를 遂하기로 決定하엿다 차노伊外相은 右會議後 부라페스트로 赴하야 匈牙利政府와 協議…하리라한다

宋哲元氏軍隊에 邦交敦睦令通達

【北平二日發同盟】宋哲元氏는 十月一日附軍令으로서 第二十九軍全軍에 對하야 日本과의邦交敦睦令을發出하엿다 右는 九月十八日豐台事件에 關한 冀察政務委員會外交委員會로부터 日本大使館에 手交된 豐台森川氏事件解決의 正式回答文書中에 明示된것이다

北中에戰備進行

交戰狀態서도主權擁護하라고

國府、秘密裡命令發送

【北平二日發同盟】國民政府는 成都 北海 漢口 上海 各事件의 外交交涉에잇서서 日本側要求의 目標는 領土侵略에잇다고 觀測하고 設使交戰狀態에陷하드라도 北中의主權을 擁護할것이라는根本方針을 樹立하고 各省當局者에對하야 主要한 極秘의命令을 發하엿다한다 卽

一、中央軍을 最大限度로 北上시켜 山西綏遠省境及 平漢線南段一帶에 集中케하기爲하야 이미進行中

二、宋哲元氏에對하여는 保定을 第一線으로 四線에亘한 防禦線工事의緊急完成을命하야 거의 完成되엿다

三、綏遠에는 傅作義의 武力이 扶植되어잇기때문에 中央軍은 조곰식綏遠軍을 增援하고잇다

四、이미 中央軍三個師는 山西에 入하엿다

五、中央軍側은 特히 第廿九軍을 使嗾하야 山西綏遠方面과의往復을 頻繁하야 險惡한空氣를調成하게되엿다

佛國銀行三分利下

【巴里二日發同盟】佛蘭銀行은 公定割引步合을 五分으로부터 一擧三分으로引下하엿다

中山事件의犯人

楊、葉兩人의死刑判決에對하야

近藤陸戰隊司令官談

【上海二日發同盟】中山事件犯人에對한 判決言渡를 맛친後 近藤陸戰隊司令官은 左와如히 말하엿다

今日의公判에잇서서 葉海生、楊文道가 모다 死刑宣告를바덧는데 이것은 余가 처음부터 信하야 疑心치안헛든바이다 이것으로 中山兵曹의 靈도 地下에서 瞑할터이며 司令官으로서도 感慨가새롭다

그러나 余는 最近에 頻發하는事件에鑑하야 日本陸戰隊로서는 依然 自衛上必要한 處置를 觀察하지안흘수 업는것을 遺憾으로녀이는바이다 最後에 本事件發生以來 長久한 歲月에 亘하야 工部局警察當局의 絶大한 努力에 深甚한敬意를 表하는바이다

鐵道疑獄事件 政界方面에擴大

某前大官現代議士等

【東京電話同盟】前代議士 難波清人氏의 召喚에 依하야 一轉政界方面에 擴大를 豫想되고잇는 鐵道疑獄에 關하야 銳意追及中의 警視廳에서는 一日午前中 召喚한 鹿島組會計課長 唐澤叔夫氏에對하야 淸水係長搜査二課土田主任警部가 일즉부터押收한 土木協會의 帳簿等에關하야 詳細히 訊問을遂行하엿는데 아즉不明의點이잇스므로 同夜는 警視廳에留致하고 一方留致中의飛島組會長 前貴族院議員 飛島文吉氏에對하야 同樣地下調室에서 淸水係長 土田警部에게 午前九時부터 午後八時에이르기까지 長時間에亘하야 峻烈한取調가잇섯다 그結果某前大官이 當時 이疑獄事件의 渦中에잇는것이 드듸어 明白히되는模樣이다 또此間에 介在한 現代議士二名 現某省高級官吏一名이 새로 黑幕의人物로서 登場할形勢에잇다 警視廳當局은 疑獄의對照로서 前大官의 社會的地位를 考慮하야 召喚하기까지는 數日間의 時日을두고 檢事局과協議한後 愼重을 期할터이나 現留致者의取調에依하야 證據는充分하야 特히 某大官의 召喚을爲하야 新人物의召喚取調의 必要가업다는 確信을갓고잇는模樣이다

西班牙國會 二個月만에開會

【마드리드一日發同盟】西班牙國會는 十月一日 [illegible]二個月만에 開會되엿는데 [illegible]四百四十名中 겨우 百[illegible]名[illegible]下에 非常時[illegible]를 [illegible]하엿다 席上에서 카바레로首相은 [illegible]과의 抗爭結果를 報告하야 內亂終了後는 푸로레타리아로 共和國을 [illegible]할 [illegible]이라고 [illegible]하엿다 다음에 카탈로[illegible]를 [illegible] 바스큐地方三州에 自治[illegible]의 自治를 許容하는 法案을 可決하고 또 政府에對하야 內亂鎭定에 必要한 모든 [illegible]을 附與하는件을 可決하엿다 十一月一日[illegible]豫定이다

總督府中堅事務官의 大異動銓考着手

十月廿日頃正式發表

總督府의 中堅事務官級大異動은 來十日頃까지 銓衡을 終了하야 十五日頃까지에 內閣에 送付하고 二十日頃에는 正式發令키로되엿는데 今回의異動은 農村振興課新設에伴하는 米穀課、農務課等分事規程改正、林政、學務兩課長及 京城府三部制에依한官界全般에亘한 廣汎한것이라고 豫想되는바 農務課長에는 鹽田農產課長、米穀課長에게는 景山農政課長이 各其轉任하고 殘餘의缺員을中心으로 總督府及地方廳間에 多數의交替가 잇슬터인데 異動圈內에잇는 人物은 左와如하리라고 觀測된다

◆內務部長 松島忠北、白井平南、古市全北、神谷江原

◆警察部長 兵頭慶南、伊坂平南、岩城忠南、中野忠北

◆總督府課長 西岡地方、西崎理財、西本水產、岸土地改良、柳生圖書

◆府尹 高橋平壤、永井仁川、門脇大邱

◆總督府事務官 福島外事、坂上警務、野溝商中樞院、一杉上海、高尾新京、服部新京

◆專賣局 森庶務、信原事業、山地製造

西班牙動亂畫報

政府支持의 義勇軍이 마드리드郊外의 反軍의 巢窟을 襲擊하야 一戰을 交하는光景

人事·集會

◆德川家達公(日本赤十字社社長) 十月二日午前十時二十三分平壤發同午後三時 京城着歸京

◆前田利爲少將(陸軍大學校長) 二日午後三時二十分 京城着入京

◆德川好敏中將(航空兵團長) 十二日午後四時頃飛行機로入京平壤會寧兩飛行隊視察豫定

◆山田遞信局長 二日午後三時三十分京城發平壤、元山方面에出張六日歸任豫定

夕刊後市況 二日

◆大阪 短期 無記◆

大新 一七二〇〇（二〇高）
鐘新 一七三九〇（不變）
日産 八二五〇（一〇低）
東新 一三七四〇（不變）

◆橫濱 生糸 後引◆

當限 七三九〇〇 先限 七三五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〇六〇 先限 五八九〇

당장에 숨이끄칠듯한괴로움
천식
놀나운新創見劑
완고한기침
「スペロイン」(스페로인)을 速히服藥하고全快하십시요

注射以上의頓服藥

「스페로인」의 偉大한 作用

◇「스페로인」을 頓服하면 峻烈한藥效作用을나타내어 喘息의發作을 巧妙히小便으로빼는 强心性의貴重한 化學藥입니다.
◇決코一時的으로숨을막는아니오니 아모리괴로운喘息의 發作도「스페로인」의 頓服으로아조쉽게나어서나종듯이됩니다
◇완고한기침이끄치고담이아니나와서咽喉가爽快하여呼吸이질리며 身體에 爽快한溫暖感을주어서氣分이非常히조하지며心臟이 편하고安眠이잘됩니다
◇이와가티 有効하나모루히네나 아드레나린其他의 痲醉藥의問題가안임으로 아모리連續하야 服用하야도 人體에絶對로害가업서서 念慮될것이업습니다.
◇繼續服用하야두면 喘息의發作이 적어지어드되어 喘息이나지안토록 튼튼한體質이됩니다.

「스페로인」實驗者는効力의偉大함에놀라서「참으로注射以上이라고」올머지버리십니다 어떠한喘息에든지 効力이잇습니다 「스페로인」을服用한는지 無効하야 천식은죽기까지낫지안는다고悲觀하고잇든사람이나 注射로自己의生命을短縮식키든사람에게 一大福音입니다. 迷惑치마시고지금곳實驗하십시요. 詳細한說明書는藥에添附

適用症 「천식」氣管支加答兒、氣管支擴張、완고한기침、利尿、神經痛、偏頭痛其他기침의諸症

藥價 「스페로인」藥價 六日分一圓、十五日分二圓、二十五日分三圓、四十五日分五圓、百日分十圓、(有名藥店에有함)
萬一絶品時는直接으로送貨、前金은無料代金引換五十錢加 有名藥店에잇슴

スペロイン發賣元 東亞藥園
大阪市天王寺東平野町三(電車上五) 電話南四〇一五番・振替大阪七五一四番

特約店 京城南大門通新井藥房 同本町四丁目木村藥房 釜山辨天町藤田藥房 釜山辨天町大黑南海堂 平壤大和町森田藥店 大邱本町 町田藥店

電醫養成(全國無試驗開業 醫師同樣習業) 認可唯一
特典·入學 認可잇는講習院으로全鮮에서本院外에는업스므로地理上關係로電醫學生의便宜를圖코저特히今期入學者에限하야汽車賃半額을授業料에서免除함
認可 高等電醫講習院 (學則送呈)
釜山府富平町三ノ一七

이以上더조흔기름은업다
ラノンラノ香油

滿山遍野珠果玉實 大自然의 饗宴節

收穫의 가을篇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공자님을 천해서 글읽을것이다.」등등……하고 인간들은 웨친다. 그러나 말없는 대자연, 칠목의 가을은 인간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귀를 기우리지 안는다. 아모런 반응이 없다. 잘만먹으면 겨울이라고 말이살찌지 말라는법이 잇드냐? 저만 부지런하면 여름인 글읽지말라고 누가 말리드냐?하고 고소리로 호령을한다. 산을치여다보고 내말을해라! 들을 바라다보고 나를 이를 지여라! 내가뭐이 되겟느냐?……하고.

들에는 오곡(五穀)의 황금물결이 친다. 산에는 선과(仙果)의구슬이 굴른다. 대자연이 인간에 보내는 선물이요 잔채다. 그러타! 이야말로 천가지 만가지 가을의 표정중에서 왕좌를 점령하는 수확의가을인것이다.

◇……◇

허울조케 륙십만명이나 산다는 대도회라하지만 대자연의품 안을 떠나서는 보잘나위 업는 요즘은 서울바닥에서 어떠케 「수확의가을」맛을 맛볼수잇슬까 보나? 그러나 지칭칠어 다처오니 방아다리배추와 삼개스(麻浦)바다 미나리가 어찌되나? 경칠까? 헛상이 나게됏스니 버덤팔이나면 심리오로라 자랑하는 정량리(淸涼里)버딴이른나갈까? 그래지안호면 괴실고장인북문(北門)밖 그른가구 경올갈까? 배추, 미나리, 벼, 감 등등…… 그어느거나가을의표정, 계절의미소아닌 것이업지만아서라! 차라리가까운 로 포도밧이나구경가자! 시내 한 나무꼬족에 아가씨들의 점작 혜화동(惠化洞)에잇는 동산장포도원(東山莊葡萄園)。가시덤불처럼 헝상궂게 얼키고 뭉키고 한 나무꼬족에 아가씨들의 젖꼭지가리 주렁주렁 매달린 송이송이。검붉은 자주빛, 희멀건연두빗에, 시푸른 초록빗, 검푸른 유록빗 등등 가지가지의 포도송이는 각각 제독특한 맛(味)을 자랑하면서 미각(味覺)을 끄으려는듯이 그를 흘른다!

◇……◇

포도밧속에서는 포도송이를 따는 일스군들의 코스노래소리가 우러나온다。그리고 자주치마에 당수확의기쁨에 취한 멜로듸가 기를 추렁추렁 따느라 아가씨의 어여뿐자태 들이 포도밧속에서 거닐고 잇다。이 송이에 다 입을 대보앗다가 저송이에다가 코를 부처 보앗다가 홍씨 벗어 러놋차마자 록섬스 멍고아 리따운 의 표 정"에 "가을 사르르 무르녹은 붉은 닥、홍은 비단폭가튼 뺨에다가 은 분수정가튼 손으로 포도를 모른다。황홀한 미소를 띄운다。 그들에게 사랑을 밧는 포도송이도 미소를 짓는듯。이거동을 바라다보는 포도원주인도 따라 서 벙그레、여름내 갈고 매고 북돗고하기에 피땀을 흘린 공든여 긔서 보람을 보이다는드시…。 이것이 수확의가을、가을의 표정의 「절정」이다!

─계속─

近畿(日本內地)地方에 肉迫 南朝鮮은 要警戒

昨夜京仁地方의 強風襲來는 不連續線의 一時的影響

颱風北東進!

지긋지긋하든 장마가 거고소소한 느진 가을바람이 추위를재촉하고잇는이때 이른날 오후 여덟시오분가량부터시내에는난데업는폭풍이비시발과 합께불어처서 온며를에 넌더리나는장마에지처빠진 부민의가슴을다시금 서늘하게하야갓다。이폭풍이 한번불면서 시내의 전등불은껌벅껌벅하고 거리와거리 골목과골목에 잇는 상점의 간판들은 검불모양으로 나자빠지며 초가집 영이 뒤지며 지는등한 때는 적지안흔 범석을 일으켯다。이에대하여 인천관측소(仁川觀測所) 발표에 의하면 다음과갓다──

【仁川支局電話】==二日午後八時三十分 仁川觀測所發表==東經百二十一度와 北緯三十九度에서 七百二十「미리」의 颱風은 時速三十「키로」의 速力으로 北東으로 進行하고잇는中이다。이颱風이 오늘밤 늣게나 來日 아침 일즉이 日本近畿 地方에 上陸하게될모양인데 今年度에 드러 最初記錄을 짓게될듯하다。 그影響을 바더서 朝鮮南海岸의 風勢는 크게 警戒를 要한다。

오늘밤 八時五分 京仁地方에 颱風이 襲來한原因은 揚子江沿岸에서부터 不連續線이 朝鮮에 걸처잇고 朝鮮地方에 颱風이잇기때문에 그影響을 바더서 一時的風勢를 일으킨때문이다。朝鮮은 大槪흐리고잇고 곳곳마다 비가나릴것이다。

九州南端에는지금부터 十九「미돌」의颱風이 불고잇고 沖繩縣石垣缶에는 北北勢의颱風이 六十「미돌」의風勢로 불고잇는데 지금暴雨가 나리고잇고、那覇缶에는 西北勢의颱風이十四「미돌」의 風勢로 불고잇는데 날세가 호리고잇고 那覇缶에는 北勢의颱風이불고잇는데十九「미돌」의 風勢를보이고잇서서 지금 비가나리고잇는中이다

優勢한共軍과 激戰 三十名射殺擊退

中野部隊도戰死傷二十二名 寬甸縣大錯草溝에서

【奉天一日發同盟】關東軍本部發表==안동성관전현(安東省寬甸縣)주둔의 중도(中島)부대의 중야(中野)부대○○명은 관전으로부터 대평창(大平廠)으로 향하야 군량수송을 하노라고 전진중에 이십구일 오전열한시부터 동현제사구대착초구(第四區大錯草溝)부근에서 약삼백명의 공산군과 마조처서 적으면력으로서 교전중이란 급보에접하고 곳안동(安東)에서 황전(黃田)대위이하 ○○명이 급히응원출동하야 공군삼십명을 꺼꾸러트리고 통화으로 이를격퇴하엿다 이전투에로 명통나엇다 상세는 아직모르며 현재까지 판명된 전사자는 다음과갓다

伍長 臼井 兵(階級不明) 近藤 丸山 高橋 野村 並木 高 坂 島崎 加藤 君亜 秋田 橫本 淸水 有馬 平澤(以上十五名)

濱江海倫縣에도 合流土兵團襲來

三時間激戰後擊退 討伐隊側損害戰死傷十名

【哈爾濱一日發同盟】당지주둔안등(安藤)○○○대에하의 중도(中島)부대와 금전(金田)부대는 이십구일 빈강성 해륜현(濱江省海倫縣)남서사십리의 정황지오정(正黃旗五井)에 통림강(桃林江)해룡(海龍)의 합류토비(合流土匪)약삼백명이 래습하엿다는 보고를 접하고 곳동지로급행하야 동일오후세시부터 약세시간동안 계전한뒤에 드디여 이를격퇴하엿는데 토벌대의사상자는 다음과갓다

▲戰死 伍長山本九一(愛知) 上等兵山本要(同上) 同中村隆治(靜岡) 同奧政利(宮崎) ▲負傷 上等兵野中勘一郞外五名

各界實業家登場한 賭博事件 倂合審理

二日午前에第一回公判開廷 傍聽席은家族親知로大滿員

정미업자 광산가 해산물무역상(海產物貿易商)토지중개업자등 시골사람 서울사람과 밋일본내지인까지 한패가되여 다섯명식 혹은 네명식 소화팔년삼월부터 이곳 저곳으로 몰려다니며 한번에 수십원식을걸고 화투도박을하다가 금년오월 본정경찰서에 검거되여 구속 또는불구속으로 두차례에 나누어 송국된 소위 신사도박사건관계자 장환(張煥)(三一)등 열네명에관한 도박개장(賭博開場)동방조(同幇助)및 상습도박죄에관한 제일회공판은 이일오전열시부터 경성지방법원 제사호법정에서 김(金)판사심리 지전(池田)검사관여미레열리엿다 피고들은 모다상당한재산을 가지고도 호화로운생활을하여온만큼 방청석에는 피고들의 가족및 일반방청자가약백여명이나 모혀서 립추할여지도업슬뿐아니라 법정밧게도 들어오지못한 방청객이 수십명이나 모혀섯섯다

불구속피고 리명복(李命福)등 일곱명은 지난봄 정월중순경부터 돈의정(敦義町)김동수의 집외 두어곳에서 전후아홉차례 나화투를하되 한번에 오원내지 십원식거러 판돈만 삼、사천원에달하는 큰도박을 하다가 역시 본정서에 검거되여 송국된것인데 피고중에 먼저구속으로 송국된 도박사건과 관련된 피고가 잇는관계로 병합심리를 하게된것이다 사실심리에 들어가서 먼저 구속피고여덜명에 대한심리를 시작하엿는데 당일출정한 피고씨명은 다음과갓다

拘束被告 ▲京城黃金町二丁目一九一 張煥(三一)▲淸津府新岩洞八三 金龍煥(四七)(保釋中)▲仁川府牛角里一六 金廣鎬(三四)▲京城鍾路六丁目一六 李建虎(四七)▲京城新堂町四○九 李範烈(四七)▲京城鳳凰町一五七 沈聖求(三二)▲京城淸進町一七八의四 康泰俊(五一)▲京城益善町三六의一 鄭斗永(四一)(以上八名)

·不拘束被告 ▲京城貫鐵町三五의三 李命福(四一)▲京城壽松町六七 金奉斗(三一)▲京城東四軒町四八의二四 梁正煥(三六)▲京城黃金町二丁目一六 金榮培(四九)▲京城東四軒町三五番地 三宅孫太郞(六三)▲京城敎義町二一 金東周(三二)▲淸津府新岩洞 金龍煥(四七)(以上七名)

李奇福에게 二年半役求刑

소화팔년이래경긔도개풍군대성면 풍덕리(開豐郡大聖面豐德里)일대를중심으로 치안유지법위반사건에 관련되야 방금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중인 신동우(愼東玉)리주환(李周煥)등과함께 적색농민조합을조직하려하엿다는 전긔풍덕리출생 리긔복(李奇福)(二八)에대한 치안유지법위반사건공판은 이일오전열시부터 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 향천(香川)검사관여미레 열리여 재판장의 사실심리가 잇슨다음 검사로부터 이년반징역구형이 잇섯다

"神經""衰弱"과"物價" 混線되여飮毒自殺(生命危篤)

이일오후네시사십분경에 시내 화천정(和泉町)십팔번지 간판업을하는 허진(許鎭)(三二)이라는 사나이가 자긔집에서 양잿물을먹고 자살코저 신음하고잇는것을 집안사람들이 발견하야 응급치료를하엿스나 방금생명이 위독하다고한다 그원인은 이전부터 신경쇠약에걸려 최근에는 물가가올라가서 갈수록생활고가심하여저서 이것을비관한것이라고한다

苦力軍이大擧 移住同胞襲擊

【間島二日發同盟】하롯밤오후령시반쯤되여 만주국쿨리두명이 연길현두도구(延吉縣頭道溝)서쪽십리가량되는 부락에사는 조선사람 원도옥(元道旭)의집에서 동나무두개를 훔처가려는자가잇는것을 주인원도옥이가 발견하고 그것을 힐난하자 그「쿨리」는 갑자히 가젓든도끼로 원에게중상을입히고 다라나는것을 부근조선사람들이 그자를 붓잡어가지고 두도구일본령사관 경찰서로 끄을고가든중 때마침 그근처에서 철도공사를하고잇든 만주국쿨리 삼십여명이 그자를 빼아서가려고 가젓든도끼들을 휘둘르면서 닥치는대로 조선사람들을 따리여 몃명의 부상자를 내엿다 그래서령사관분관경찰서에서는 폭행한자들을검거해서만주국측으로넘기여사건을무사히해결하엿다

마금한뒤에도 救濟金品遝至

二日午後本社寄託分

수해구제의연금품은 마금후에도 멈추지안코 각지동포로부터 본사에몰려들고잇다

▲現金十圓九十一錢也 衣類九點 平南中和公普校生徒一同 ▲現金六圓也 水原進明幼稚園保姆一同 ▲現金四十圓也 漢榮高等學院職員生徒一同 ▲四十六圓九錢也 樺太名好郡名好村字鑛山敷地崔永錢外一同 ▲七圓五十錢 滿洲鐵嶺農村普通學校兒童一同 ▲十一圓六十七錢 東京帝國女子醫學藥學專門學校朝鮮人學生一同 ▲八圓八十錢京都市下京區上鳥羽大柳町朝鮮人一同 ▲二十四圓十二錢京畿道富川郡素砂面中里靑年部員一同 ▲三十四圓四十七錢全南靈光郡靈光面白鶴里在民一同 ▲五十圓京城新設町世界護謨工業合資會社員一同 ▲八十一錢黃海道延白郡海龍公普一學年兒童一同 ▲三圓三錢川崎市木川法政大學豫科生一同 ▲十一圓十三錢黃海道延安普校兒童一同 ▲二十四圓咸北明川在留南朝鮮人親睦會 ▲十二圓五十五錢楊平郡玉泉面玉泉里古邑敎會 ▲五圓 水原學生會 ▲二十三圓四十錢中央商工株式會社職員及職工一同 ▲별표고무靴一箱中央商工株式會社 ▲三圓五十七錢及衣類八點京城新設町耶蘇敎會一同 ▲衣類十六點培花女高普生徒 ▲十圓三十錢東京目黑中目黑朝鮮人一同 ▲五圓五十錢京都同志社女子專門學校寄宿

孟、金兩氏 五百圓義捐

水害救濟金으로

(會寧朝鮮人學生有志)

추위압해 떨고잇는 남조선수해리재민을 구하기위하야 평북창성군신창면완풍동(昌城郡新倉面完豐洞)의 맹영옥(孟永玉)씨와 김수일(金洙一)씨가 이일각각이백오십원식한계오백원의 의연금을 본사로긔탁하여왓다 (사진 바른편이 맹영옥씨 외인편이 김수일씨)

江原道八郡水害

【警務局着電】수일전에 강원도 동해안일대에 다시폭풍우가잇서 린제(麟蹄)、회양(淮陽)、통천(通川)、고성(高城)、양양(襄陽)、강릉(江陵)、삼척(三陟)、울진(蔚珍)의팔개군의 피해는 상당히 커서 사자팔명 부상자사십일명、행방불명자십명、가옥유실 오십칠호 전괴이백이십륙호 침수이천오백륙십칠호선박유실팔척 전괴십구척 반괴칠척에달하엿다 도선로의 불통은 간성(杆城)、고성(高城)간만불통중이다

先金잘라먹는 挾雜外交員跳梁

洋服써게사는바람에돈만떼운 被害者들은警察에說諭願

최근 종로서보안계에는 양복을 주문하고 선금(先金)을 내엇는데 양복을 갓다주지안코돈만 잘라먹엇스니 돈을찻게해달라는 설유원이 무려수십통이나 들어와잇는데 이들돈을잘라먹은 사람은 대개가 그본점을 동경(東京)등지에 두고 조선총지사(朝鮮總文社)라는 간판아래 수십명의외교원이 전조선각지방으로 다니면서 주문을바다 영업을하는 시내 재동정(齋洞町)입구에 잇던제국양장사 조선총지사(帝國洋裝社朝鮮總支社)며 또는 시내 종로이정목 구십일번지 금산상회(金山商會朝鮮總支社)등의 외교원들로서 그들은 교묘한말로 외교하야 광고에난 물건보담 엄청나게낫븐양복을주는일이 만흘뿐더러 심지어 몃원씩의 선금을 그대로 잘라먹어 버리는일이 만타는데 그피해자가 위선그서에 설유원을낸것만해도신흥군원평면(新興郡元平面)사무소원 림필두(廉弼杜)단양군대강면(丹陽大崗面)리광식(林光植)등 수십명에 달하는바 경찰에서는 단연 엄중처벌할터이라고한다

貴金屬든 손金庫窃盜犯

東大門署서指名手配

시내창신정(昌信町)사십일번지 의사백록후 한정석(韓景錫)의집에 지난이십구일 오전한시경에 어떤자가 귀금속이든 손금고를

올림픽四選手

四日午後京城着豫定

【神戶支局特電】긔보한바와가티 백림올림픽출장대표 일행은 신호에서열린환영회에 림석하엿다가 그중리상백(李相佰)씨와 리규환(李奎煥)군은 일행과 함께 당일오후열두시삼십분 삼궁(三宮)역발 렬차로 동경으로 향하고 렴은현(廉殷鉉) 리성구(李性求) 장리진(張利鎭) 김용식(金容植) 정상희(鄭商熙) 제군은 삼궁(三宮)역전 길야(吉野)려관에서 하로밤을지나고 금삼일오전열한시 삼궁역발 렬차로 향리경성을 향하기로 되엿는데 경성에는 사일오후세시 특급으로 개선할예정이다 그리고 멀리동경으로부터 일행을마즈러 신호까지온 구락부원안중희(安重熙)、권태성(權泰星)등군과 본사대판지국원박영수(朴永壽)·장동찬(蔣東鎭)등량씨는 전긔길야려관으로 선수들을방문하야 서로주고밧는 올림픽감상담으로 이야기의 꼿츨피우다가 늣게야 산회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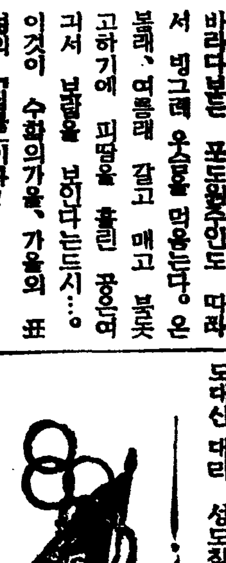
新連絡船 興安丸進水式

三日에盛大擧行

【長崎電話同盟】일만칠천륙백마력 「터ー빈」엔진을 장치한 「스피ー드」화의 중대여객선 흥안환(興安丸)의 진수식(進水式)은 이른날아침 삼릉조선소(長崎三菱造船所)에서 철도대신 대리 성도참여관(星島參與官)을 비롯하야 수백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야 성대히 거행될터인데 이배는 얼마전에 진수(進水)하엿든 금강환(金剛丸)의 자매선(姉妹船)으로 길이 백이십칠미돌、넓이 십칠미돌로 오천톤급의 우수한배로서 현재 조선과의 대표적연락선이다

綜合競技大會 籠球對陣決定

來八日부터三日間



朝鮮體育會主催의 第十七回全朝鮮綜合競技大會籠球競技는 來八日부터 三日間 鍾路靑年會館後庭에서 擧行할터인데 그對陣은 다음과가티 抽籤決定되엿다

一般部

【第一回戰】 A.漁大津對平實(十一日午前十一時三十分)

【準決勝戰】 B.羅南對滿州(同午後一時) C.京觀對鐵道(同午後二時半) D.光州對平觀(同午後四時)

【決勝戰】 A의勝者對B의勝者(十三日午後零時) C의勝者對D의勝者(同午後二時) (十四日午後三時半)

專門部

延專對普專(三十日午後四時) 高麗對O·B(十日午後三時)

【第一回戰】 A.齒專對大豫(九日午後四時)

【準決勝戰】 藥專對法專(十一日午前九時) A의勝者對普專(十一日午前十一時)

【決勝戰】(十四日午前十時半)

中等校部

漢城商業 八日 / 中央高普 三時 / 善隣商業 三時五分 / 中等公民 / 中東學校 三時五分 / 啓聖學校 三時五分 / 徽文高普 / 靑年會校 四時四分 / 儆新學校 四時四分 / 協成實業 / 養正高普 五時半 / 大東商業 — 九日 二時 / 十日 一時

培材高普 十一日十時 / 儆新學校 十一時半 / 京城商工 / 淸州農業 十二日八時半 / 全州高普 十日二時半 / 淸州高普 / 裡里農林 十日一時 / 崇仁商業 十日十時 / 第二高普 / 井邑農業 十日三時半 / 第一高普 十日八時半 / 鏡城農業 — 十二日十時三十分 / 十二日八時半 / 十三日十時

神宮競技 蹴球對陣

第十二回朝鮮神宮體育大會蹴球戰은 來九日午後四時부터 一週間京城運動場에서 行할터인데同大會의 對陣은 다음과갓다

延專主催 中等庭球開幕

二日午後同校코ー트에서 參加學校는十二校

延專主催의 第七回全朝鮮中等學校庭球大會第一日은 二日午後二時半부터 延專코ー트에서 이大會에參加한 善隣、養正、京城商工、普成、培材、中東、東星、協實、中央高普、第二高普 等의 十二個校選手八十餘名의 入場이잇슨後 大會長元漢慶氏의 開會辭와 前年度優勝校中東學校로부터 優勝盃及優勝旗의 返還이잇섯다。그리고 參加選手一同을 代表하야 宜川信聖學校主將 朴春福君의宣誓文朗讀이잇는다음 競技는 同二時四十分부터 一齊히열리바 戰績은다음과갓다

【第一回戰】

【養正】勝【商工】 ○尹周鉉·任淳浩 4-0 宋顯球·全吉浩 × / ○李世元·朴庸主 4-2 李昊根·李樂發 × / ○朱漢植·尹泰淑 4-1 吳樂成·徐宗植 ×

【培材】勝【普成】 ○金在應·金邦喜 4-1 閔南基·金慶九 × / ○李昌受·宋在鳳 4-0 朱雲鎬·柳寅錫 × / ○李慶泰·黃秉坤 4-1 南宗植·金炳洙 ×

【協實】勝【靑學】 ○閔咲彬·李熙三 4-2 鄭在煥·鄭師甲 × / ○閔西基·金元錫 4-1 徐天洙·梁在鹽 × / ○李泰來·高斗奎 4-1 金學鎭·林用淳 ×

【信聖】勝【中央】 ○崔鳳源·朴貞寬 4-2 鄭一奎·金元遠 × / ○張陽元·張仁煥 4-1 李範純·朴鍾太 × / ○朴春福·崔禮峻 4-0 申相雨·崔炳圭 ×

【第二回戰】

【培成】勝【中東】 (第一라운드) ×(金在應·金邦喜 3-4 南在九·李炳洙○)

【養正】勝【中東】 (第一라운드) ○李昌受·宋在鳳 4-2 李炳在·李枝洙 × (第二라운드) ○李昌受·宋在鳳 4-2 安秀植·申東一 × (第三라운드) ○李慶泰·黃秉坤 3-4 安秀植·李鍾鎬 ×

【協實】勝【二高】 (第一라운드) ○金龍長·廣錫麟 4-0 閔咲彬·李熙三 × / ×安吉善·吳相浩 1-4 閔西基·金元錫○ / ○金萬均·朴元基 4-2 李泰來·高斗奎 × (第二라운드) ○金龍長·廣錫麟 4-3 閔西基·金元錫 ×

【信聖】勝【善隣】 (第一라운드) ○崔鳳源·朴貞寬 4-2 金炳鎬·金在鎬 × / ×張陽元·張仁煥 1-4 崔道淳·崔根尙○ / ○朴春福·崔禮峻 4-2 閔丙玉·李銘基 × (第二라운드) ○崔鳳源·朴貞寬 4-1 崔道淳·崔根尙 ×

實業庭球리ー그 總督府優勝

府廳、遞信을이겨

京城實業庭球리ー그第十二日…日은 雨天으로因하야 中止되엿든 總督府對專賣局戰과府廳對遞信戰은 二日午後五時부터 朝銀、殖銀兩코ー트에서 繼續擧行한바 總督府팀이 接戰끄테 專賣局을이겨서 同리ー그의 覇權을獲得하엿다 그리고 府廳이遞信을이것다

【總府】勝【專賣】 熊野·李應麟 4-3 白滸輔·朴寅世

【府廳】勝【遞信】 張南星·申鳳喆 4-3 宮崎·孫敬星

實業庭球12日現在

順位		比率
1	總府	1.000
5	遞信	0.400
2	殖銀	0.667
2	鐵道	0.667
4	專賣	0.500
3	府廳	0.571
6	商銀	0.000
6	朝銀	0.000

〔○는勝●는敗〕

世界野球爭霸戰 巨人軍先勝

六A對一·양키스

【뉴욕卅日同盟】今年度世界野球爭霸 第一日…「뉴욕·양키스」對「뉴욕巨人軍」戰은 三十日午後一時半부터 巨人軍의 本據「뽀로·그라운드」에서 球審「빠·파이아만」「마겔야스」「섬머스」의 四氏審判아래 開始되바 豫想대로 六A對一의스코어로 巨人軍이先勝하엿다

양키ー스 001000000 1

巨人軍 00001104A 6A

◇投捕=양키ー스(포라이앙ー듸키ー)、巨人軍(하뻴、맹크소)

仁川府民運動會 大盛況裡에終了

【仁川】仁川運動場開場式兼府民大運動會는 豫定과如히 昨一日 野球場에서 擧行한바 觀衆五千餘名의 雲集으로 立錐의 餘地가업는 大盛況裡에 終了하엿다는데 當日의 成績은다음과갓다

今日의運動

▲陸上=第十七回全朝鮮綜合競技大會陸上競技 正午 京城運動場

▲庭球=延專主催 第七回全朝鮮中等學校庭球大會 第二日午後二時 延專코ー트◇京城實業庭球리ー그最終日 午後二時 遞信對總督府、專賣對商銀、朝銀對殖銀(以上遞銀코ー트)午後三時

▲野球=京城實業野球리ー그 京城電氣對府廳 午前十時 京城球場

廿餘年府有墓地에 突現한新所有主

百廿餘基墳墓改葬願을提出 今後歸趨가注目處

이십여년을두고 공공연한 공동묘지로 내려오든땅에 난데업는 새임자가나타나자 이때까지 임자로자처하든 경성부의실색도 어지간하거니와 그곳에잇는 백여분상의 묘임자들을 깜작놀나게하는『묘지소동』(墓地騷動)이 이러낫다 시내 병목정(並木町)십사번지 하야랑등(下野浪登)은 신당정(新堂町)산(山)사십사번지의 사십이호로부터 사십사호까지 (地積六反一畝)가 자긔소유임으로 정지(整地)를하야 주택지로 할려으로 그안에들어잇는 일백이십칠긔의 분묘개장허가원(墳墓改葬許可願)을 지난삼일 소관동대문서에 제출하엿다 동서에서는 이허가원에 첨부한 림야대장등본(林野臺帳謄本)에도 동인의소유로 명긔되여잇슴으로 서류를수리하는동시에 시월륙일까지 긔한을정하야 분묘소유자또는 관리자는 동서에게출치안흐면 무연분묘(無緣墳墓)로간주하고 개장을허가한다는 고시(告示)를하엿다

이에깜작놀난 경성부에서는곳 동대문서에 의의를제출하엿슴으로 여기에 소유권문제의 분쟁이생하게되엿스며 따라서 동서에서는 요사이 전긔고시를 철거(撤去)하고 마럿스나 이분쟁의 귀결은 지금부터 대단히주목되는바이다

大正二年以來 國有地를讓受

個人所有로넘어가게된다면 府의責任이重大

경성부의 주장은 이러하다 이땅은 부소유인 수철리공동묘지(水鐵里共同墓地)칠만이천삼백여평에 포함된것으로 대정이년사월일일부로 원경성부동부(東部)의 사부에서 국유지양수(讓受)를 어더공동묘지로써 오든것을 대정삼년사월일일 부제(府制)실시가 되는동시에 경성부가이것을 계승한것이니 부소유임은 다시말할것도 업는일이며 학거를물너가 그런경로가 업다하드라도 십년이상 소유의의사를가지고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온땅임으로 부소유임에 틀림업다(民法百六十二條)는것이다

만일이주장이성립되여 경성부가 승리를한다면 하등문제는업스나 전긔 하야씨의소유로 확인된다면 반듯이 이곳에잇는분묘의 개장문제가 이러날것이며 따라서 경성부에도 중대한책임 문제가 될것으로보인다

墳墓改葬은 絕對로不必要

堂堂한府의所有地다 府衛生當局者談

경성부위생과(衛生課)당국자는 다음과가티 이야기한다

저편에서는 최량해본결과 자긔들의 주장대로 경성부에서 저편의 땅들일부분을 점령한 것가티 되여잇스나 경성부에서 치량한결과는 현재의 경계선이 적당합니다 설사 저편의 소유지라 할지라도 경성부에서는 벌서 십년이상이나 공연히 선의로 점유(占有)해왓슨즉 당연히 경성부의소유로 될수밧게업습니다 분묘(墳墓)를 파내라는것은 당찬혼 말입니다 저편에서 소송을 이르키면 얼마든지 응할작정이올시다

本町署管內傳染病 三百九十二件

一月부터九月까지

본정서관내의 금년도 전염병(傳染病)총계가 이일발표되엿다 구월말까지의 전염병 발생수가 모다 삼백구십이건으로 전년도의 칠백사십구건에 비하면 대략 절반이나 경감된모양이다 이것을 병명(病名)별로보면 적리(赤痢)가 팔십오건으로 여전히 왕좌(王座)를 점하고잇고 그다음은 성홍열(猩紅熱)이구 도이것을월별(月別)로보면 류월부터 갑작히 증가하야칠월이 최고 칠십팔건이라는 최고긔록을 보이고잇다

開城淸潔日割

【開城】 부내십삼정(十三町)추기청결방법은 다음과가튼데 만일 우천이경우에는 최종일 다음 날자로 미룬다한다

十二日=太平町 南山町
十三日=大和町 西本町 北本町
十四日=宮町 京町
十五日=南本町 東本町
十六日=元町 池町
十九日=高麗町 滿月町

軌道에轢傷

지난[illegible]일, 경성궤도회사(京軌)긔동차와 화물자가 정면충돌하야 경성사범학교생도 사십여명의사상자를내인후 처음으로 또사고가일어낫다 삼십일밤 아홉시경에 경성궤도 회사 운전수 김용가(金容佳)는 제십팔호 긔동차를 운전하야 동대문에서 뚝섬으로향하든 도중 창신정(昌信町)사백사십이번지 근처에서 철길을건너라는 미지를 보고곳 브레키를 거럿스나 멈지못하고 부되쳣다 … 공부인병원에 다려다가 응급치료를하엿는데 얼골기타에 전치삼주일이상의 중상이라고하며 피해자는창신정 홍씨(洪氏)라는것만판명되엿다

私立養英普通學校 開校祝賀式

四日同校校庭에서

삼십여년의 력사를가진 부내마포 양영보통학교(養英普通學校)는 경영난에 잇다가 작년에 리필우(李弼雨)씨가 인수하야금년신학긔부터 신교사로 이전하고 지난팔월십오일부로 사립보통학교가 인가되엿스나 모든준비관계상 형편에따라서 개교식을 연긔하여오든바 오는사일상오전 십시부터 신교사에서개교식을 거행하다하며 제일회추긔대운동회도 동교교정에서 거행할터인대 학부형은물론이요 일반관계자의 다수참석을 바란다고한다

本社見學

공주읍내 영명실수학교(永明實修學校)남녀학생 사십이명은 김재경(金在慶)선생인솔하에 이일 본사를견학하엿다 (사진은견학일동)

白雙巖送局

부내 유력회사인 중앙리재사(中央理財社)전무 백쌍암(白雙巖)(三一)에대한 사긔사건은 이래취조도 일단락을 지엇슴으로 이입아츰 사긔죄(詐欺罪)로 일건서류와함께 경성지방법원 검사국(京城地方法院檢事局)으로송치하기로되엿다 그리고 백쌍암과 모생명보험회사 경성지사장(某生命保險會社京城支社長) 강모(村岡某)와의 관계에대하야서는 여전히 취조를 계속하고 잇는데 취조에따라 흥미로운 진전을 보힐는지도 모른다고한다

大仁川記念式

【仁川】 삼만부민의 주목을끌고잇든 인천부구역확장은 마침내 상부의인가를 엇게되야 시월일일로부터실시하게되얏다 이날은 과연전인천은 축하의기분이 하늘높이올리여 동오전십시부터 인천신사압헤서는 관민유지삼백명이 모힌가운데에 긔념식을성대히거행하엿다한다

遞信勤續者表彰

시월일일 체신긔념일에 경성체신분장국과 경성우편국 에서는 오전열한시에 판임관(判任官)이상으로 이십오년이상 고용인(雇傭人)으로 십오년이상 계속근무한사람 오십사명에대하야 소성(小城)분장국장으로부터 각기표창장(表彰狀)을 전달하엿다

伊東氏의好意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원장 이동순길(伊東淳吉)씨는 지난번 작고한 부인의 소긔(小朞)를 긔념하기위하여 현금오십원을 명진사(明進舍)에 긔부햇고 또부내종로(鍾路)일정목에사는 김태희(金泰熙)씨는 현금 천원을 역시 명진사에 긔부햇다

東新學院大運動會

시내수표정(水標町)에잇는 동신학원(東新學院)에서는 오는사일오전열시부터 시내련건정(蓮建町) 배영(培英)운동장에서 추기대운동회를 개최할터인바 학부형들은물론 일반의참관을 환영한다고한다

府會員視察團

경성부의 촉탁으로 경성부회의원

杉市郎平 韓萬熙 齋藤治
關根金作 加藤好晴 朴勝城
大梅健治 曺秉相 鄭相喆
古城龜之助

등열명은 오는사일에 경성을떠나십오일동안에정으로대판(大阪) 경도(京都)、명고옥(名古屋)、횡빈(橫濱)、동경(東京)등 각도시를시찰조사할터이라한다

昌成町小火

지난삼십일밤 오후열한시경에 시내창성정(昌成町)구십사번지 조병영(曹秉榮)(三)의 허깐에서 불이나서 집소스랑이 조금타고 곳진화되엿는데 경찰에서조사한결과 실화로 판명되엿다

朝鮮醫師協會 幹部部署決定

조선의사협회에서는 지난구월이십오일의 총회와그후의 간사회에서 다음과가티 부서를 결정하엿다한다

幹事長 李申洙
庶務部 部長 申聖雨 沈浩燮 朴昌薰 李先根 吳漢泳 朴鍾榮 鄭一千 李義植
社會部 部長 尹日善 白麟濟 李容卨 許信 金昌善 李錫申 張慶
經理部 部長 李榮俊 申弼浩 李鍾綸 尹致旺 金東益 尹泰權 金晟鎭

開城 白頭山探險大講演會

▲時日 十月五日午後七時
▲場所 高麗青年會館
▲演士 金秉河、柳達永
◇主催 開城高麗青年會
◇後援 朝鮮日報開城支局

第八回 全朝鮮團體柔道大會

日時 十月十七日午後二時
場所 鍾路青年會運動室
申請期日 十月十六日午後三時까지 同日午後八時抽籤
主催 朝鮮中央基督敎青年會
後援 朝鮮日報社

雙虹舞【4】

方仁根 作
金奎澤 畫

虫先生 (四)

조금 열린 문틈으로 보히는 것은 뜻밧게도 어여쁜 은명의 얼굴이엇다. 광훈은 깜작 놀래여, 옷둑이처럼 벌덕 일어 안젓다.

『진지상 가저올가요』하고 은명은 가늘게 말하엿다. 하인은 어대가고 저녁은 느젓고 핑계김에 나왓스나 몹시 부끄러웟다.

『네……』하고 광훈은 황공한듯이 허처나오는 목소리로 대답하엿다. 그것은 그들이 서로 만나지 거의 이년만에 일생으로 처음 교환하는 말이엇다.

그들은 서로 단둘이 만날기회도 엇거니와 간혹 파일방해서나 개끌돌업헤서 만나면 서로 깜짝놀래고 북그러워 피해버리엇다. 그리고는 서로 인사하고 말을 못한것을 후회하고 앗가워하엿다. 이담엔 맛다드리면 꼭 말을 부치리라고 서로 각각맹서하엿지마는 실상 또 딱 마조치면 그만 입이 딱 얼붓는것이엇다. 얼마후에는 서로 원망까지하게 되엇다. 은명은 광훈이 사나이니까 의레히 먼저 말을 하여야할것인데 아니한다고 야속하게 생각하고 광훈으로는 아무리 녀자이지마는 주인격이니까 말을 부처야할것이라고 혼저변명하엿다.

그러나 막상만나면 할말이업섯다. 그리다가 필경은 은명이참다 못하여말을 먼저하기로하고 기회를엿보다가 오늘은 용기를내어 말을하엿다. 한어지 북그러우면서도 자기가 말을하면광훈도 반가워할것을 밋는고로한것이다. 그러나 광훈은『네!』하고대답할뿐 아무말이업섯다. 은명은 터서서 말할수가 업섯다. 그것은 밧든이 광훈이 다른말을 끄내어 더 길게 말을계속되도록 할것인데 광훈은 또입이 짝히엇다. 은명은 광훈의 말이나오기를 기다리고 한참이나 주춤거리고 잇는것이 후회가나고 분하엿다.

광훈에게는 얼른말거리가 하나 생각낫다. 그것은 은명을다시한번 처다볼때 전과달리 따어느리엇든 머리를 들어올린것이엇다.

『누구신지 몰라뵈엿슴니다 아주면사람갓슴니다』하고 말하니 은명은 웃음띄운 붉은얼골을 푹숙이엇다. 광훈은 은명이 머리를 들어올린것이 엇더뜻 양장스럽고바 기실햇다. 감작히 양머리로 숙바올하니 어른처럼 보힌다는것보다도 떠어느린 커다란 처녀때보다오히려 어려보혓다. 그리고 몹시 어색하게 보혓스나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딴은 조키도하엿다.

은명은 오늘 속발을하고 광훈에게 보힌것은 자기도 어른계집아이가 아니라는것을 알리우기도하고 또 머리를 들어올리면 좀 어른다워저서 남자와 교제하기도 무관하다는까닭이엿다. 머칠을 두고 머리를 틀어보고 다시틀어보곤 하엿다. 또 교다님때는 머리를 떠어느렷도 관계치 안터니 시골집에 오고 보니 말처럼 커다란 처녀가 길로 다닐수가업고 가치잇게되어 머리를 들어올리고 죽엇도 자유로 해보려는 심산도 잇섯다.

『병환은 아주나으신니까』하고 광훈은 말하엿다. 이러케 말할것이 만코 술술나오는것을 왜 못하엿슬가하고 광훈은 마음이 느긋해젓다.

『네—인제 다 낫서요』

『서울로다시 가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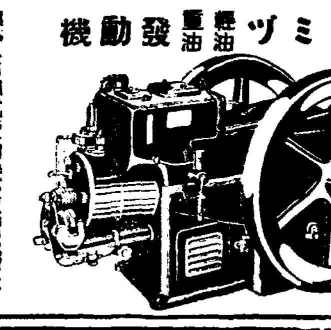
『안가겟서요 아니못가요』

그들은 말문이 또 꽉 막히엇다 은명은 방으로 들어갈수도 업는처지요 그러타고 문밧게 오래서서 하인에게 들킬가보아 얼른 안으로 들어갓다.

광훈은 은명이 들어간뒤에 생각하니 온몸의 피가 기뻐으로 뛰고 옷속해지는것가타엿다. 오래동안 알튼이가 빠진것처럼시원하고 어려운 숙제를푼것가탓다. 그리고 자기 가슴속에흰하고 고흔꼿치 활작피인것갓고 광명한 천지에 들어온것가탓다.

조곰후에 하인이 밥상을 가저왓다. 반찬이 유란히 조와보엿다. 그것은 은명이 정성스럽게 손수맨들어 보낸것갓다 맛도잇거니와 다먹어어시하는것이 어쩐지 앗가웁기도 하엿다. 그는 행복스러운 락원에서 사는것가티 늣기어젓다. 한참후에는 은명의 아버지가 저녁을 먹고안에서 나오더니

『편선생 잠간 이방으로 건너오시요』하고 말하엿다. 광훈은 웬일인지 가슴이 뛰며 나려안젓다.

▲農林省審査 優位入選機
カナミツ 輕油重油發動機

電氣使用量의半額 一日、八馬力에約八十錢
籾、石油式發動機、籾摺、精米製粉、精麥機揚水ポンプ在庫豊富
朝鮮總發賣元 森田商會機械部 釜山大倉町四丁目 電話三六五六 振替釜山四四七
各地特約販賣店募集

謹告

從來 黃金町一丁目出張所에서 營業을하든바 今番 本町二丁目으로移轉하고 十月一日의 始政記念日을卜하야 支店을 開設합니다 그리고 內外書籍雜誌類外에 文房具洋品雜貨化粧品類도具備하야 販賣하오니 못조록 倍舊의 愛顧를하여주시기를바라며 紙上으로 披露의말슴을드리나이다

昭和十一年十月

京城府本町二丁目 丸善株式會社京城支店 電話本局(2)四三六六 五九〇六

營業品目
第一階 文房具類 洋品雜貨化粧品類
第二階 內外書籍雜誌類

永遠連鎖大サービス附き
秋冬物 メリヤス雜貨
名古屋市中區仲ノ町三丁目 矢島百貨通販部
電話本局一六〇二番 振替名古屋一九六二一番
店名捺印に限りカタログ贈呈

カタログ進呈 特約店募集
名古屋市中區古澤町四 合名會社 柴田商店 振替名古屋二三一一番

韓靑食堂
今日부터營業革新週間 左와如히一週日間特價奉仕

洋定食(七品高級製)	壹圓
日本定食 B 正宗한병끼워서	壹圓十五錢
テンプラ定食	六十錢
スキヤキ定食	六十錢
朝鮮定食(八品高級製)	七十錢
朝鮮料理定食 B	五十錢
支那料理定食	七十錢
神仙爐	六十錢
朝鮮藥酒床	五十錢
煎骨 並 特大	三十五錢
白飯	五十錢
支那八寶菜 並 特大	五十錢
サンドヰチ	二十錢
カレーライス	四十錢
ハイシライス	二十錢
冷麵	二十錢
溫麵	二十錢
ランチ特製	三十五錢(配達엔三十)
親子丼	二十錢
親子ウトン	二十錢
カキウトン	十五錢
イナリ壽司	十錢
ノリ卷壽司	十五錢
만두	十五錢
떡국	十五錢
어북국	十錢
장국밥	十錢
비빔밥	十二錢(配達엔十五錢)
栗飯定食	四十錢
赤豆飯定食 特價	三十錢
テンプラ丼	三十錢
フライ 同	十錢
ミルクセーキ	十錢
소리가 同	十錢
上	十錢
식혜 特大	三十錢
花冠	五十錢
葉宗	十錢
月桂冠 正宗	二十五錢
안주各種	十錢ヨリ六十錢

(各種料理配達迅速) 專用電話光八・二九七二

待望의名篇十月二日大封切
유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죠ㅣ지매루포ㅣ드氏大作品!
ジャバの東
찰스픽포ㅣ드氏 主演
에리사배스양그孃 후랑그알바ㅣ든슨氏 助演
食慾罪惡의魔窟航船인海龍號에부드치는國際警戒放送의電波??生命을銃火에呼訴하는罪犯의血顚과船長의脅迫속에殺人的颱風은赤道直下의孤島에이르럿다戰慄、慘虐을極한창글속의脅威…?
마스곳도超特作全發聲連續
뛰는幽靈 第一篇
리부스이ㅣ슨氏監督作品!
괫도구랜지ㅣ氏 決死의猛演 도로시가리바ㅣ孃助演
赤澤키네마提供全發聲時代劇 マキノ正博監督作品!
からくり劍法
嵐寬壽郎 主演
花園百合子 岡島艶子 助演
貫鐵町 優美館 電光三九

陽氣업서 恨歎하시는 분이여!
貴下를 爲하야 補精腎氣强壯에 神奇神秘한 天惠的靈効를 가진
樺太廳官營捕獲
眞品 海狗腎 을販賣함
本品은 北洋寒海樺太의 無人島産을 樺太廳에서 官營으로 捕獲하야 同廳水産物檢査所에서 嚴正檢査證明한 世界的高貴의眞品이라 一服하시면 그神効를 能히 체驗하실것이외다! 求服을 願하시는분은 說明書請求하시면 無料進呈함
發賣元 釜山府草梁町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長二二一九番 振替釜山七九二二番

朝鮮日報社江華支局 電話三十一番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番

産業

南洋貿易促進策
直通航路開拓·斡旋機關設置等
殖産局에서 研究進行

南洋貿易에 呼應하야 朝鮮對外貿易의 新針路로서 南洋、近東에의 販路擴充은 過般의 石井技師 視察로 그機運이 顯著히 促進되어 殖産局에서 慎重研究를 進行하고잇는바 朝鮮의 對外貿易에 占하는 南洋貿易의 現況은

昭和五年度에잇서 十二%를占하고잇는바 昭和七年에는 僅僅二%로 縮落하고 最近의 昭和十年에는 八%를 示함에 不過하다 比率로 看하면 昭和十年度도 昭和五年에는 未及하야 그振興策을 總督府에서 考究中인것은 다음의 諸點이다

一、朝鮮과 直通航路를 開拓할것

一、貿易斡旋의機關 乃至 商況報告等을 行할 連絡機關을 置할것

一、華商에 代身하야 直接貿易商이 現地에 出張할것

一、그他 助成、促進施設

對滿施設에서 貿易振興으로
外事課의 方針도 轉換

總督府外事課의 機能은 暴皆의 對滿施設에 集中되어잇는 狀況이든바 對滿關係의 諸懸案은

一、治外法權의 撤廢

一、在滿朝鮮民會의 改組

一、鮮滿拓殖公司의 事業開始

等等으로 對滿施設中心은 漸次其重要性이 減殺되게되엇음으로 相川課長의 抱負도잇서 今後重要性을 加하야가는 對中貿易에 對하야 外事課本來의 使命에 도라가 通商振興에 積極的으로 進出할方針을 決定하얏다 旣報와가리 商係新設도 이方針의 表現인바 外事課에서는 다시近近 相川外事課長이 渡東하야 外務省通商局과 折衝을 遂하고 總府의 在外派遣員도 今後通商關係에 注力케하는外 在滿施設費의 財源的餘裕로써 이方面의 施設費에 充當케할 方針으로 外事課의 右對滿施設中心主義에서 通商貿易에로의 新轉向은 注目된다한다

石炭液化工業에 德川炭을 充用?

【平壤】液體燃料의 國策의 立場에서 政府는 資本金一億圓의 官民의 燃料事業投資會社를 創立하고 社債와 借入金에 依하야 五億圓의 資金을어더 液體燃料製造事業에 投資하고 政府는 右民間投資에 對해서 五分의 配當保證을 하게되엇고 同社關係에 依하여 年額百五十萬噸의 液體燃料를 供給하려는 計畫을세웟는데 이것은 日本의液體燃料事業을 顯著하게 促進하는것이므로 關係方面에서는 多大한 期待를가지고잇다 그런데 新朝鮮無煙炭會社에서는 德川炭田의 埋藏量이 意外로 豐富하야 그開發을 單只 煉炭原料에만 充當할수업슴으로 他方面의 用途를 企圖하든中 以上과가튼 國策에 順應하는 投資會社의 成立을 보다면 엇던程度의利益을 度外視하고라도 採算이될可能性이잇서 無煙炭의 液化가具體化하는것으로 보인다

漢川浦의 漁獲高
十二萬圓에 到達하야
空前의 大記錄을 示現

【漢川】平南平原郡 漢川漁業組合의 今春四月부터 去月十四日까지의 現計高를보면 漁物生產高 九萬圓 大蛤生產高 三百圓으로 例年에업는 超記錄的數字를 내엿는데 當組合手數料만하여도 百圓을 突破하야 當組에서는 勿論 一般漁民은 歡喜에넘친다고한다

大邱肉價協定

【大邱】大邱食肉販賣營業組合은 얼마前에 認可되여 創立總會를 開催하고 現在組合員三十七名인바 大邱의 食肉은 大田、仁川、京城、平壤、釜山에 比하야 廉價로 協定되엿는데 對比價는 如左하다 (單位斤當錢)

等別	大邱	京城	平壤
特等	五〇	五五	五四
一等	四〇	五〇	五〇
二等	三五	四五	四〇

木浦造船組合創總

【木浦】木浦府內에 只今까지 獨立的으로 船舶의建造及修繕業을 經營하는 造船業者十六名은 去月二十九日 相互間親睦을 圖하며 造船技工을 向上할 目的과 斯業界의 發展을 期하기 爲하야 創立總會를 開催하고 左와如한 役員을 選擧하엿다한다

▲理事 河合好 ▲幹事 大野鶴藏 出上長藏

植物檢查를 嚴重히 施行
不良品의 出入을 禁止

植物檢查官會議는 三十日로써 終了하얏는바 이번會議로 植物檢查行政上에 從前의 受動的檢查를 脫하야 積極的으로

一、朝鮮內生產의 樹苗 그他의 品位를 向上식히고 不良品의 搬出을 不許할

一、輸移入品에 對하야는 鄕手不良品을 防遏하야 根絶식힐것

의 二方針을 決定하고 根本的으로 檢查機關에도 改善을行하기로되엇다

大邱稅務署長會議指示

【大邱】大邱稅務監督局管內 稅務署長會議는 二十四日부터 三日間開催하얏는바 同會議의 指示事項은 如左하다

一、官紀拾肅에 關한件

一、報告書類의 調製와 提出期限等에 關한件

一、土地臺帳의 整備에 關한件

一、災害地稅免除 取扱方法에 關한件

一、地籍圖整備에 關한件

一、第三種所得稅의 決定誤謬然防止에 關한件

一、大納稅者에 對한 第三種所得의 實額調查에 關한件

一、營業稅調查에 關한件

一、朝鮮酒檢查監督에 關한件

一、酒造組合의 麴子經營에 關한件

一、酒稅令違反者에 對한 處罰에 關한件

種牛向上을目標
種牛管理品評會
咸北各地에서開催

【清津】咸北道 畜牛增殖事業은 總督府令 咸北道令等으로 優良牛의 保護保留에 各種施設을 하여오든中 昨年種牛檢查規定을 發布하야 素質의 向上에 努力中이든바 道當局에서는 種牛檢查와 種牛管理品評會를 如左히 開催하리라한다

▲會期 自十一月四日 至十一月三十日

▲出品의區域及點數 道內一圓으로하고 保護種牡牛全部를出品함

(一) 審查區域

第一區 鏡城 明川 吉州 城津

第二區 富寧 茂山 會寧 鍾城

第三區 穩城 慶源 慶興

窮農救濟코저 아카시아種買入
順川產組에서 實施

【舍人】平南順川地方에서는 三萬有의 大旱災로 말미아마 窮民은 다가려 울고잇는중인바 順天產業組合에서는 그들의 窮狀에 同情하야 多少라도 救濟에 도움이 되게하기 爲하야 方今 「아가시아」種子를 多量 買入하는中이라는바 代價는 一升에 三十錢式으로 갈때모으면 一日에 一圓內外가됨으로 窮民들에게도 움이 적지안타한다

金肥消費高
五十萬噸을 突破
硫安만 四十萬噸以上

昭和十肥料年度의 朝鮮內 金肥消費實績은 硫安만으로 朝鮮二十六萬七千噸、朝鮮外品八萬八千噸、合計三十五萬五千噸으로推算되는데 此外 硫安高에依하야 流入한 代用品(人造硝石이나 호스、魚肥等)의 硫安換算의 五萬噸을 加하면 硫安의 消費는 四十萬噸以上으로되고 此外 燐安、約四萬噸、石灰窒素四萬八千噸、過燐酸四萬噸、配合肥料等을 合算하면 五十萬噸을 넘어 突破한 模樣이다 이에 依하야보면 今肥料年度의 金肥消費는 五十五萬噸以上되는模樣이엿다한다

江西郡下棉花豐作

【江西】江西郡下에는 例年에업는 棉花豐作으로 因하야 昨年에 棉花產出이 二十一萬斤이든 것이 今年에는 勿驚八十萬斤을 突破하리라는바 作付面積은 例年에는 三千餘町步이든것이 今年에는 約三百町步라한다

貯銀木浦支店不遠開業

【木浦】十月一日부터 木浦에開業하라든 朝鮮貯蓄銀行木浦支店은 其間여러가지 事情으로 因하야 遲延되엿는바 前十八銀行支店事務所를 買收하야 來十一月九日부터 開業하기로 決定되엿다한다

今日

重複質問말고 一回一問으로 簡單明確하게

問 海產物(主로 煎子、鰯魚)의 專門都賣商을 下敎하시오(安東縣四番通 蕭商事會社)

答 京城府東大門市場 金寅澤 商店、同南米倉町 辻本商店

日用商品市況

十月二日 京城市內의 雜穀市況은 大體다음과갓다

▲大豆 軟調

新豆出廻切迫으로新舊辨寄、漸落되여 一時의高價에比하야 弱一圓四十前 反落이다 今月中旬부터는 連汶長等은 繼續出廻될터임으로 當分間은 好轉難望이다 今日 每一石市勢는

	現物	年內物
龍山三等	一三、三〇	一九、〇〇
連汶長	一三、〇〇	一八、六〇
金汗南帶	一三、七〇	一八、六〇

▲粟 續落

滿洲、北中國各地 新粟注文이 旺盛하야 더욱買氣를 助長하며 現物은 賣行不良으로 續落이다 新舊粟 格差는 五十錢되기까지는 現物이 續落되리라 豫想된다 今日은 百斤當市勢는

	現物	年渡
奉天粟	七、九〇	七、五〇

▲大麥 弱保合

賣買殆無이며 市勢는 弱保合으로 今日每石當時勢는

秋麥	八、三〇
春麥	七、三〇

▲小麥 氣崩

九月限契約品受渡는 一段落을 告하야 買氣가업고 時勢는 反落이다 麥斷賣行不良과 外麥不味、日本麥軟化等으로 製粉側의 買氣全無임으로 當分好轉은 難望이다 今日每石當市勢는

沙里院	二〇、〇〇
新市	一九、八〇

▲胡麻 弱保合

新穀期切迫으로 買氣別無하야 時勢는 弱保合으로 石當市勢는

南京	一四、五〇
天津	一四、二〇

乳用山羊 利用과飼養法 (1)
李相泰

山羊은 家畜中에서 極히 性質이 溫順하고 體質이 强健하야 他家畜에 比하야 疾病에 잘 걸리지 안는다。特히 乳牛와가리 肺結核에 걸린 例가 두물다。此點을 보아 山羊乳는 牛乳에 比하야 安全하다。山羊은 體質이 强健함으로 牛馬보다도 荒蕪地 山岳地帶에서 雜木葉과 雜草로서 잘 生長하며 新鮮한 乳肉을 供給한다。歐米의 古言에 「乳用山羊은 貧農의 乳牛다」라고 함은 實로 適言이다。山羊의 飼養法은 一般이 생각하고잇는 것보다 簡單容易하야 農村에서나 郊外生活者가 根菜類、雜穀의 糠、其他殘菜、殘飯等의 부엌의 殘滓物로서 飼養하면 一年을 通하야 經濟的으로보아도 別로 費用이 들지안는다。乳用山羊을 農家에서 飼養할時에 留意할點은

一、山羊乳에 依하야 榮養을 取하며

二、殘乳는 副業的으로 販賣할 것이다

決코 專業的으로 經營할것은 못된다。(京城、平壤、釜山等地의 大都會를 除하고 農村은 別問題이지만) 如何히 山羊乳가 조타하더라도 大資本으로 經營하는 牛乳와는 競爭할수업다는것이다。副業的으로할이도 可及的이면 最初에 小資本으로 一、二頭를 購入하야 漸次 擴張함이 可하다。現今우리朝鮮은 榮養에 對한 一般水準이 他文明國에 比하야 뒤떠러저서 乳類에 對한 知識이 薄弱하며 特히 牛乳보다도 山羊乳에잇서서 一層 顯著하다。一般家庭에서는 身病이잇슬時에 專用으로 飮用하고잇는 現象이다。其他動物과가티 우리 人間도 能히 乳만으로 數年間生育할수잇을때 엇지 乳類의 榮養價値를 忘却할수잇스랴。特히 山羊乳中에는 牛乳보다도 우리榮養에 「비타민」과가티 重要한 蛋白質과 脂肪이 만다。換言하면 우리農村의 各農家에서 每戶一、二頭式 乳用山羊을 飼養하야 榮養分을 만히 攝取하야 每日의 勞働力의 根源인 「에네르기ー」를 補充하며 俸給生活者도 飼養하야 保健에 用力하면 理想的일것이다 이와가티 民衆保健上에 多大한 價値를 가진 乳用山羊도 國家經濟上으로나 資本의 擴張再生產에는 他畜業아니니 乳牛에 比하야 價値가 無함으로 뒤떠러저잇다。

乳用山羊의 價値

一、山羊은 性質이 溫順하야 老少婦女라도 能히 飼養할수잇스며 特히 兒童의 벗이되며 動物愛護心을 培養식히는힘이크다

二、飼養管理가 容易하며 體質이 强健하고 朝鮮의 氣候風土에 適合하다。特히 高原地帶의 荒蕪地에도 適當하다。

三、淸潔한것을 조와하며 疾病이적다。特히 結核에 抵抗力이 大하야 此의 念慮가적다。그럼으로 牛乳에 比하야 育兒에 安全하다。

四、牛乳도 榮養分이 만치만 山羊乳는 一割乃至 二割牛乳에 比하야 濃厚하며 母乳에 近似하고 消化도 잘된다。

五、體形이적고 乳牛보다 資本이 들지안흐며 乳牛一頭의 飼料로서 七、八頭의 乳用山羊을 먹일수잇고 體形에比하야 一頭約 一升五合이라는 만흔乳量을 搾乳할수잇스며 自家用의 新鮮한것을 먹을수잇다。

六、山羊의 糞尿에서 廐肥等의 肥料를 어듬으로 肥料代가 節約된다。

七、朝鮮農業은 小農經營임으로 規模가 적고 特히 小作農이全農家戶數의 五二、七六%自作兼小作이 二五、三五% 小作兼火田民이 三、一八% 純火田民이 一、〇六% 即 零細農이 全農家戶數의 八三、四八%를 占領하고잇는만큼 現金支出로서 榮養不足을 補充하기는 너무나 不可能하다。그럼으로 農業經營에 關係가 잇스며 榮養分이 豊富한 乳用山羊을 飼養하기를 勸하다

榮養知識의 必要

總督府統計에依하야 出產、死亡等에 關하야보면 如左하다。

▲出產、死亡、死亡率의十年間變動

年度	出產(男女合)	指數	死亡(男女合)	指數	出產에對한死亡率%	全人口에對한死亡率%千人에對한人數
大正十二	[illegible]	一〇〇、〇	[illegible]	一〇〇、〇	[illegible]	[illegible]
同十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年間平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主要各國民의 死亡率(千人에對한)을 보면 朝鮮이 一位이며 日本內地가 다음이고 佛、伊、英、獨、諾、和等의 順序이다。우리 保健問題의 重大性을 알수잇다。

[註] 出產數는 男女를合한 數이며 死產도 出產으로 認定하고 加하엿다。計算은 四捨入九에 依하엿다 以上表示한것에依하면 出生에 對한 死亡率은全く 口에對한 死亡率은 昭和五年부터 增加하며 出生은 減少되여 간다。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四六五	金鑛	忠北忠州郡老隱面	八月三十一日	大阪市東成區 鹿井 泉之
一三四六六	砂金	忠北鎭川郡德山面	八月三十一日	京城府 朝鮮金鑛業株式會社
一三四六七	金銀鑛	京畿利川郡夫鉢面	八月三十一日	京城府公平町 金 膺 植
一三四六八	金銀鑛	平北寧邊郡北新峴面	九月一日	博川郡 代表者 金 相 有
一三四六九	金銀鑛	平北楚山郡	九月一日	价川郡价川面 代表者 金 淳 順
一三四七〇	金銀鉛	咸南定平郡長原面	九月一日	定平郡府內面 代表者 金 在 仁
一三四七一	鉛錫	江原伊川郡方丈面	九月一日	京城府新堂町 代表者 南木
一三四七三	金銀鑛	咸南三水郡江鎭面	九月二日	三水郡江鎭面 玉置知之助
一三四七四	金銀銅	黃海谷山郡花村面	九月二日	京城府 金 熙 善
一三四七五	金銀鑛	江原金化郡任南面	九月三日	牙山郡屯浦面 代表者 李 章 漢 京城府積善町 宋 利 俊
一三四七六	金銀鑛	江原三陟郡下長面	九月三日	東京市王子區 岩瀨 亮
一三四七七	金銀鑛	全南羅州郡老安面 羅州邑	九月三日	光州府 代表者
一三四七八	砂金	忠南青陽郡化城面 洪城郡長谷面	九月四日	京城府茶屋町
一三四七九	金銀鑛	咸南高原郡水洞面 永興郡橫川面	九月四日	元山府 代表者
一三四八〇	金銀鉛	平北龜城郡五峰面	九月四日	義州郡威化面 代表者
一三四八一	金銀鑛	咸南長津郡新南面	九月四日	長津郡新南面 池 明 湖
一三四八二	金銀鑛	慶北榮州郡鳳峴面 醴泉郡甘泉面	九月四日	尙州郡尙州邑 高木 信
一三四八三	金銀鑛	慶北達城郡玄風面 求智面	九月四日	京城府內需町 代表者 李泰辰 同中林町 金漢錫 同內資町 張明植
一三四八四	金銀鑛	咸南安邊郡瑞谷面 文山面	九月五日	元山府 玉林 加一
一三四八五	黑鉛	平北江界郡城干面	九月五日	安州郡新安州面 柴田次郞平
一三四八六	金銀鑛	忠南洪城郡洪東面	九月五日	平壤府箕林里 池 周 善
一三四八七	金銀銅	慶北慶州郡陽南面	九月五日	福岡縣八幡市 杉崎鐵太郞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〇四七四	京畿漣川郡內面官仁面 抱川郡蒼水面	九月一日	京城府冷泉町 代表者 宋元彥 同安岩町 安淳用
八八九三	忠北槐川郡槐川面	九月一日	金泉郡大德面 代表者 宋仁實 鎭川郡鎭川邑 李允儀
九一一二	全南靈岩郡金井面 羅州郡細枝面	九月一日	光州府本町 林 弘 植
一〇一八八	江原淮陽郡上北面 咸南安邊郡新茅面	九月一日	東京市麴町區丸之內 日本鑛業株式會社
九五二九	忠南保寧郡青蘿面 大川面	九月三日	京城府冷泉町 代表者 金泰源 平壤府大平通 李致淳 忠州郡山尺面 金技敎
五八七八	咸北鏡城郡朱南面	九月三日	京城府司諫町 代表者 鏡城郡朱南面 藤田 長吉
一一九四〇	平北昌城郡大倉面	九月四日	雲山郡北鎭面 代表者 昌城郡東倉面 金 桂 祚
一二八四三	平北熙川郡熙川面	九月四日	京城府竹添町 崔 昌 學
八三六二	江原淮陽郡下北面	九月五日	京城府敦義町 李 鏞 九
一一三五八	咸南長津郡新南面	九月七日	東京市麴町區丸之內 日本鑛業株式會社

◇共同鑛業代表者改定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〇四二八	京畿安城郡瑞雲面	九月十一日	代表者를趙完玉으로改定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八三一二	平北定州郡高安面	九月八日	崔德濟任意脫退
一二三四六	平北碧潼郡雩時面	九月八日	金秉先任意脫退
八八六三	忠南唐津郡順城面	九月九日	金益濟任意脫退
九〇〇一	平南成川郡三德面	九月十日	黃顯相任意脫退
一〇四二八	京畿安城郡瑞雲面	九月十一日	趙東律任意脫退
一〇〇六五	咸南永興郡鎭坪面	九月十一日	洪英濟任意脫退
一一八三六	江原寧越郡水周面	九月三日	李元相任意脫退

本社接受水害救濟品 (十月二日現在)

物品合計 十四萬三千五百七十二點

穀物合計 三十六俵六升一合

衣類七〇點 鶴岡二丁目 河相源 ▲尼崎市東松島 崔辰之助 一二七點 ▲紫橋聖拜堂 八八點 ▲內鮮町融和會救友一同 一二〇四點 ▲苑南町六六 姜元秀 一四點 ▲同 金元龍 三〇點 ▲平壤 盧春子 三點 ▲平壤 金相哲夫人 七點 ▲保護會住宅居住人一同 一五九點 ▲延白郡 天台耶蘇敎會 二五點 ▲金泉高等普通學校 五〇點 ▲貞洞聖公會 四五點 ▲蓮洞敎會主日學校 五三點 ▲廣府町 文化學院 七四點 ▲東本町 中央商工會社 一四〇點 ▲大阪市港區市場通 河景王 一五點 ▲進明女子高等普通學校職員生徒 二四點 ▲桃花町三聖書學院生徒一同 二七點 ▲新設町耶蘇敎友一同 沿慶鎬 四一點 ▲新設町朝鮮協同基督敎會 八點 ▲培花女子高等普通學校生徒 一〇點 ▲團門白鳳街基督復臨安息日會 三一六點

培花女高普生 計 一六點

목도리 一點▲肇匣 六點 / 치마 二點▲적삼 三點 / 알지마 一點▲手巾 三點

靈光郡白鶴洞會 衣 五三點

文大連 六點▲李 忍 四點 / 鄭泰柄 三點▲金治瑛 三點 / 綿谷春一 三點▲丁炳奎 二點 / 金永石 二點▲曹永權 二點 / 金大燮 二點▲曹鍾鉉 二點 / 曹萬錫 三點▲李在機 七點 / 朴東煥 三點▲鄭洛三 三點 / 朴貞淳 二點▲鄭泰穎 三點 / 河原虎雄 二點▲朴好覺心 二點 / 裵八釆 一點▲朱榮邁 一點 / 金孟圭 一點

尼崎居留朝鮮人一同 衣 一八五點

藤田寅太郞 十點▲梁順植 二點 / 林鳳鶴 二十一點 古靴四足 / 魏蓮姬 九點▲張乙那 三點 / 車南順 七點▲姜德順 四點 / 崔容順 三點▲金鳳道 三點 / 金東浩 八點▲金周善 四點 / 林月成 三點▲森辰之助 二七點 / 徐玉今 七點▲金鳳守 六點 / 權鳳坤 三點▲外 哲 三點 / 朴順玉 三點▲金好善 二點 / 朱順伊 二點▲申敬順 二點 / 張殷守 四點▲金杰守 二點

西湖津支局經由 衣 一八〇點 米 二斗八升二合

靑山印刷所從業員一同 衣 [illegible] ▲崔在弘 一點▲姜尙求婦人 五點 ▲張花中仙 一點▲朴昇明 一點 ▲金鳳三婦人 二點▲韓淮彬母 一點 ▲朱鳳善 三點▲安慶子 一點 ▲李貞順 二點▲崔鳳泰婦 一點 ▲劉喆秀婦 一點▲申貞順 一點 ▲方春花 一點▲鄭南龍 一點 ▲徐守卿 三點▲安國瑞 一點 ▲金貞淑 二點▲趙玉花 一點 ▲裵明仙 三點▲全春仙 一點 ▲吳成根 一點▲李宗浩 一點 ▲李東圭 五點▲朴琴順 一點 ▲李蓮玉 一點▲李遂春 二點 ▲金慶月 二點▲金貞九 一點 ▲李錦花 一點▲盧道模 二點 ▲金忠鎬 八點▲朴善姬 一點 ▲金九玉 六點▲張貞玉 一〇點 ▲廉乃淑 四點▲宋雲白 一點 ▲李桂男 一點▲韓相彥 一點 ▲尹明寬 一點▲楊昇漸母 三點 ▲林南善 一點▲李鐵山母 一點 ▲金義鉉母 三點▲朱時寬 二點 ▲全鲁睪母 一點▲崔浩朴 一點 ▲韓楨鴻 一點▲全順貞 一點 ▲朴春子 一點▲邊相尙 一點 ▲崔圭善 五點▲朴在球 一點 ▲韓相彥祖母 二點▲林亨鎭母 一點 ▲金基鮮母 一點▲李承俊 一點 ▲林炳文 七點▲柳月仙 一點 ▲李致吉 一點▲南姓女 一點

漢南町町會 衣 四五九點 米 九升

朴榮信 米三升八點▲朴雲文 一點 / 延順欽 米一升五合 衣類二點▲李貴龍 二點 / 許夫人 一點▲金元浩 一點 / 劉時鉉 二點▲康榮山 一點 / 李福升 三點▲李圭成 一點 / 金先用 一點▲申昔天 二點 / 李富善 三點▲朴自斤淳 一點 / 金在弘 一點▲延壽甫 一點 / 金漢甲 一點▲朴慶柱 二點 / 宋夜得 四點▲康致禕 五點 / 金化三 二點▲李千成 三點 / 李龍根 五點▲李龍男 三點 / 金泳成 一點▲金允鎬 一點 / 李興交 三點▲鄭漢圭 二點 / 梁清完 三點▲全泰植 一點 / 金元根 二點▲朴奉一 一點 / 劉魚龍 五點▲石聖祐 一點 / 全漢植 三點▲金元澤 一點 / 李明植 三點▲柳興達 二點 / 柳興澤 一點▲金浩成 一點 / 金順成 二點▲金仁植 一點 / 崔萬石 二點▲柳興達 二點 / 金先同 一點▲梁允仲 二點 / 柳今釗 一點▲金洙宗 二點 / 申文伯 一點▲鄭鳳源 一〇點 / 金德根 四點▲漢興商店 靴十二足 / 金景萬 四點▲孫榮寬 五點 / 吳明根 一點▲黃聖南 二點 / 韓昌福 二點▲林萬象 二點 / 朴興順 三點▲柳二鳳 二點 / 金仲植 二點▲申敬植 二點 / 吳美蓉 一點▲金潤學 二點 / 林貞順 二點▲洪善日 二點 / 李千萬 一點▲鄭福順 二點 / 趙海瀅 三點▲林南主 二點 / 咸善潤夫人 二點▲朴小吉 七點 / 咸奇男 一點▲林炳穆 五點 / 朴敬澗 三點▲林點山 二點 / 李範洙 三點▲申俊景 一點 / 李貴弘 一點▲李明雲 二點 / 李順童 一點▲金敎相 一點 / 李長雲 一點▲張文敎 二點 / 朴順西 一點▲李鐘南 三點 / 柳興男 一點▲尹相大 二點 / 李淑榮 五點▲洪民成 五點 / 鄭光浩 四點▲申俊弘 二點 / 徐光明 二點▲朴光文 二點 / 朴善奉 九點▲義福仁 五點 / 朴世雄 五點▲李貴植 二點 / 金壽福 二點▲黃君明 四點 / 鄭桂福 四點▲柳相樹 一點 / 金鳳植 二點▲李基鉉 三點 / 柳乙龍 米五合▲全永順 二點 / 鄭永文 一點

桃花町一區町會 衣 五二七點 米 四升

金昌夏 小米五合▲申淑子 小米一升 / 朴近赫 小米三合▲韓相彥婦 小米二升 / 楊昇漸母 小米一升五合 / 韓鳴鍾 小米五▲高長國 小米一升 / 元鳳文 小米一升▲鄭道京 小米一升 / 鄭鳳熙 小米一升▲元秉植 小米一升 / 康五壽 米一升▲李德鉉婦 米一升 / 李成鐵 米一升五合▲李成集 米一升 / 金錫鉉婦 米一合▲李廷浩婦 米一合 / 李杜領婦 米一升 / 金鍾祐婦 米一升▲吳炳根 米一升 / 劉喆秀 米一升▲金鳳健 米二合 / 朴東漢 米一升▲朴海春 米一升 / 池景燮 二點▲元鎭植 二點 / 李龍蓮 二點▲朴在丙 二點 / 韓禮甲婦 二點▲李弘杜婦 五點 / 朴豊秉婦 二點▲安麗水 一點 / 高亨淑 四點▲陳貞守 一點 / 崔浩潤 六點▲玄鳳學 二點 / 李致吉 一點▲南姓女 一點 / 林炳文 七點▲柳月仙 一點 / 金基鮮母 一點▲李承俊 一點 / 韓相彥祖母 二點▲林亨鎭母 一點 / 崔圭善 五點▲朴在球 一點 / 文泰成 一點▲林景得 二點 / 朴文奎 一點▲高益煥 一點 / 韓正山 二點▲金明植 一點 / 鄭淑仁 三點▲黃萬興 二點 / 金載源 二點▲李和星 二點 / 鄭福成 一點▲李俊釗 一點 / 金永達 一點▲宋貴男 三點 / 金壽鐵 一點▲金泰奎 二點 / 李再吉 三點▲姜大學 二點 / 金敏台 五點▲李康吉 三點 / 李順錫 二點▲申順龍 二點

金錫奎 二點▲崔玉姬 一點 / 金仁培 一點▲成斗石 三點 / 吳仁順 白米壹一升▲川崎竹次郞 一點 / 李明順 五點▲李泰在 七點 / 嚴裕煥 二點▲崔秦鉉 三點 / 吳今俊 二點▲金鍾完 二點 / 文龍山 一點▲林啓澤 一點 / 文敬完 一點▲金東赫 一點 / 李敏華 一點▲尹善安 六點 / 張順明 一點▲金光玉 一點 / 金洙燁 三點▲林順石 二點 / 金昌辰 二點▲延聖俊 一點 / 金宗用 一點▲鄭榮均 一點 / 高載明 一點▲金興德 一點 / 姜壽童 二點▲朴照榮 一點 / 兪雲鍚 二點▲金鎭象 一點 / 金大龍 二點▲韓國鉉 一點 / 金敬云 一點▲鄭德煥 三點 / 金鎭燮 四點▲崔興植 二點 / 羅快贈 一點▲金士石 二點 / 金洛瑞 一點▲姜龍云 二點 / 李三福 一點▲柳志舜 二點 / 韓鳴履 一點▲黃哲杜 二點 / 金昌福 二點▲李命吉 二點 / 全李順 一點▲具滋好 二點 / 李召史 一點▲成自斤龍 二點 / 金德壽 一點▲蔡鼎福 二點 / 金鏞成 一點▲朴連成 三點 / 金龍泰 二點▲李照福 一點 / 陳千萬 二點▲李昌仁 二點 / 尹奉鉉 二點▲朴富奉 二點 / 李鍾萬 二點▲柳殷 一點 / 朴奉正 二點▲崔興宅 二點 / 崔點萬 三點▲金敬基 二點 / 尹敬石 三點▲鄭命鉉 一點 / 劉 墉 三點▲朴雲鶴 四點 / 金龍燮 四點▲景基龍 三點 / 金貞植 四點▲金今成 八點 / 金三成 四點▲李順泰 三點 / 林連植 四點▲桃花町長老會 七點

金宗浩 三點▲柳允濬 二點 / 金熙鎭 一點▲李榮翊 三點 / 鄭三甫 二點▲皮鼎植 五點 / 金榮根 四點▲朴清鉉 五點 / 朴東源 二點▲金敬彥 四點 / 崔萬鍚 一點▲金東順 二點 / 安成伯 一點▲朴有奉 一點 / 李鍾烈 四點▲金漢洙 三點 / 林石根 四點▲南凡伊 六點 / 李春興 二點▲金敎信 七點 / 孫容模 二點▲李致順 二點 / 黃貞淸 九點▲李甲萬 三點 / 林炳天 九點▲朴商斌 三點 / 朴仁信 靴一足▲朴世濟 二點 / 朴性斗 七點▲崔敎源 六點 / 姜興孫 九點▲金大鳳 二點 / 車漢榮 三點▲李春福 五點 / 李完根 五點▲姜順奉 四點 / 金鎭源 三點▲金麟成 二點 / 李泰弘 一點

姜圭元 二點▲鄭泰順 二點 / 盧琪殷 一點▲諸伯石 二點 / 申占成 二點▲李福萬 二點 / 金斗培 二點▲朴興植 二點 / 申益淳 二點▲李德萬 二點 / 李成蘭 一點▲朴淵秉 二點 / 金在福 一點▲金九弘 一點 / 李玩俊 六點▲尹亨植 二點 / 池順成 一點▲李明植 二點 / 梁鎭鍚 二點▲金東完 一點 / 鄭君寬 二點▲金鍾七 二點 / 千貴甲 二點▲全允七 二點 / 金德豐 四點▲金昌盛 一點 / 咸興實 二點▲金輿貞 二點 / 金敦康 一點▲李順良 二點 / 崔仁淑 二點▲韓善福 二點 / 洪漢甲 三點▲李仁培 五點 / 朴甘祐 二點▲崔黃龍 一點 / 金允泰 二點▲柳順龍 一點 / 金斗七 一點▲柳志永 二點 / 金光玉 二點▲黃壽同 二點 / 崔周鉉 二點▲李泰鎬 四點 / 劉順相 二點▲李敏三 四點 / 李海萬 二點▲黃壽萬 三點 / 申聖佑 四點▲金鐘燮 二點 / 諸相云 八點▲楊敬守 一點 / 咸鍾弘 二點▲金榮熙 二點 / 洪思元 二點▲池一童 二點 / 柳錫芝 一點▲尹周炳 二點 / 朴春敏 一點▲金星七 二點 / 申聖培 一點▲金光文 二點 / 崔三男 一點▲廬明植 二點 / 崔龍成 一點▲柳景章 一〇點 / 姜德孫 二點▲孫仁培 二點 / 安興順 二點▲尹鎭浩 二點 / 尹炳憲 一點▲姜相雲 二點 / 金鎭燁 二點▲金永完 五點 / 宋丸山 五點▲鄭俊根 五點 / 李泰山 四點▲李興龍 一點 / 金鳳淳 五點▲金容文 四點 / 朴憲玉 一點▲李潤泰 二點 / 金泰植 二點▲金潤奉 二點 / 李駿夏 九點▲金學昇 一點 / 金泰植 二點▲崔淳基 二點 / 宋榮東 三點▲許三用 三點 / 閔昌植 三點▲李景完 一點 / 韓元得 七點▲金潛萬 一點 / 金應燠 四點▲朴應天 白米一升 / 鄭在吉 衣二點 白米壹一升▲鄭相五 四點 / 宋憲明 四點▲梁周鉉 八點 / 安先生 四點▲李鐘泰 四點 / 洪吉雲 六點▲朴慶漢 一點 / 裵炳植 一點▲洪性舜 二點 / 金錫奎 七點▲安伯萬 七點

水害義捐
社會事業協會收合

▲九一六、三四 第二十師團將兵一同(內譯)一〇三、八八 第二十師團司令部 八、三五 步兵第三十九旅團司令部 七、八四 步兵第四十旅團司令部 一六三、四九 步兵第七十七聯隊 一三八、七七 步兵第七十八聯隊 一二六、四四 步兵第七十九聯隊 四〇、〇六 步兵第八十聯隊 四、三九 步兵第七十七聯隊國境守備隊 三八、〇八 步兵第七十八聯隊國境守備隊 一九、五三 騎兵第二十八聯隊 一〇五、〇二 野砲兵第二十六聯隊 一八、二〇 同高射砲隊 三三、四五 工兵第二十聯隊 一四、八三 龍山衛戍病院 一五、四六 平壤衛戍病院 ▲六三、九八五 大邱衛戍病院 ▲九、八六一 本府官房會計課 ▲一八、〇〇 慶南昌原郡昌原面、通度寺布敎堂(京城日報社扱) ▲一〇、〇〇 奉天濱田町一五、竹本ヨシ(奉天警察署扱) ▲八、五一 羅南憲兵隊本部 ▲九、九六 羅南憲兵分隊 ▲四、七三 會寧憲兵分隊 ▲一、五〇 鏡城憲兵分遣隊 ▲五、九四 羅津憲兵分遣隊 ▲一、九三 雄基憲兵分遣隊 ▲八、五 雄基憲兵分駐所 ▲三、三〇 慶興憲兵分遣隊 ▲四、一五 慶源憲兵分遣隊 ▲三、二〇 茂山憲兵分遣隊 ▲四、二二五 穩城憲兵分遣隊 ▲二、三九 南陽憲兵分駐所 ▲三、〇三 新阿山憲兵分遣隊 ▲三、〇〇 東京市神田區淡路町二丁目淡路町會長稻田龍之助 ▲二、〇〇 東京澁谷區北原宿町會 ▲一、〇〇 寧越郡上西龍山 ▲五、二 京城地方法院構內出張所、古都順作(同) ▲六、九一 萬東萊普通學校(同)

九月二十九日現在累計 一九七、四五三、四三

黃昏 (195)
韓雪野 作　安夕影 畫

그전후 (五)

동필이가 방으로 들어가는것을 보며 복순은 한번 암이며 초조해졌다

그러매 또 청년이가 주고간 선물가 뜨끔거리는 가슴을 건드리며 더욱 맘을 불편케하지안는가?

그는 어둑컴컴한 골안에 망연히 서잇섯다.

자기를 기다리는 눈, 입, 그리고 말이 멀리서 숙삭이며 자기를 끄리당기는것가튼 야릇한 감촉을 바드며 그는 쌀쌀한 봄바람에 몸을 옷삭 떨엇다.

어둠은 순일순(瞬一瞬)기퍼온다 가까히 들리는 이웃집 시계치는소리가 그들의 운명을 같이 주고 잇는 이밤의 자리를 더욱더 무겁게 하엿다.

새캄안 어둠속으로 한줄기비를 따라 숙숙(肅肅)히 옮겨가는 동무들에게서 뒤떠러저 버리는것가튼 안타까움이 와락 자기보다 압서가는 그들은 그들의 머리를 덥는 감안 하늘에 뿌릴 메개의 별을 만들어 가지고 비출 뿌리려 가지안는가? 별은 멧개며, 어떠케 만들어엇슬가?

복순은 순간 어드운 하눌에 별을 뿌리는 이런 환상을 머리에 그리엿다.

그러나 어쩌지 그것은 환상인것 갓지안엇다.

복순은 그대로 홀적 나가버리라고도 생각하엿다. 그러나 그러케 하면 용당 동필이가 박삭 따라설것이엇다.

그리하야 그는 어찌할바를 모르고 한참 실히 그대로 서잇섯다.

그것은 실로 갑갑한 순간이엇다. 아무 변화도 아무 해결도 업는 시간이엇다.

그는 하는수업시 다시 방으로 들어와다 요부와가티 얼리 마치는 재주라도 잇섯스면 그러케라도해서 동필이를 얼른 떼여보내고 십도록 그는 맘이 수선수선하엿다.

그래서 복순은 섯넌 동필이에게 부드러운 전법으로 다다르랴하엿다—

「대체 무슨 때문이지, 네게는 말슴하실수 업습니까?」

복순은 정색하며 점잔케 물엇다.

「그거야 당신이 더잘 알거아닙니까?」

동필은 심상한 어조로 말하엿스나 그속에는 충분히 노기가 떠여잇섯다.

「내가 남의속을 어떠케 알니까? ……동필씨가 죽지씨를 안남 용우가 무엇이지 제삼자인 내가 알까닭이 잇니까?」

「나를 밧나 감시하고 잇는 당신들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감시라니요?」

복순은 약간 힐난하는 어조로 나와섯다.

「당신도 죽지이의 당당한 낭자(娘子)군의 한사람이니까 그런 문들의 말에는 모를 리 잇소?」

하는 동필의 말에는 서리발가튼 냉조(冷嘲)가 떠여잇섯다

그러지안어도 나가볼 시간이 느저저 화가 난든판이오, 화가나도 억지로 자제하는수밧게업는 이꺼려운판인데 또 이런소리까지 듯고보니, 복순은 그만 대번에 빨끈 도다나서,

「무얼 어떠해요」

하고 소리를 빽 지르며 재처

「무얼 어떠해요? 말좀 해봐요」

하고 성을 버럭 내어엇다.

「좋! 상당허군 과시 행동대의 관록(貫祿)에 어그러짐이업는데. 허허허……」

역시 강유(剛柔) 어느편에도 붓잡히지안는 냉락(冷諾)한태도다.

「그럼 소릴 할테건 어서이리나 가서요, 가요」

복순은, 헐것 하나라도 다처만 보아라한듯이 표독스레 잡아떼엇다.

「그럼 소리라니오? 그게 잘못된 소립니까?」

동필은 별안간 점잔은 태도로 어려케 반문하엿스나 복순은 아무대답도 하지안헛다. 그리고 다만동작으로 얼른 가라는 뜻을 표시하듯이 아까보다도 좀더 표독스러운 표정을뵈엿다.

「당신들의 말본으로 지금 바로 비상기니까……당신들의 비상경계에 라바로 최후퇴의일거밀통이 러려히 걸려들엇슬것아니오.」

「……………」

「옷, 나자신보다도 내행동을 신들이 더잘 알것 아니요!」

그래도 복순은 아무 대꾸도 하지안헛다.

「하니까 구타여 날드려그러케 유도(誘導)심문을할 필요도업슬것입니다 그러치안습니까?」

하고 동필은 복순의 친분한 깨처주듯이 물엇스나 그는 구지 입을 다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안헛다.